

단신브리핑

대리운전기사 손해보상보험료 지원

경남도는 대리운전기사 손해보상보험료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둔 6개월 이상 대리 운전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1인 1개 보험에 한해 보험료의 50%, 5만원/월 한도로 최대 6개월 지원 된다.

도는 약 2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희망자는 내달 1일부터 20일까지 경남도 경제진흥원으로 전자우편(kms@gnepa.or.kr) 또는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재원 도 노동정책과장은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리운전기사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사회적응에 있어 있는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원"이라며 "대리운전기사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일/ 김현준기자 <kimhj@jeonmae.co.kr >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연장

경기 성남시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최대 100% 감면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기존의 소상공인 업종 외에 보증금 6억 9000만원 이하 등의 적용을 받는 임대인으로 확대했다. 특히 임대료를 내내려야도 재산세 감면을 받지 못하던 임대인들도 올해부터는 대부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보게돼 인하 업종과 규모제한을 사실상 철폐했다.

지난 1월부터 연말까지 인하여준 임대료 인하율을 근거로 재산세 정기분 재산세인 7월 건축물분, 9월 토지분 모두 감면받을 수 있다. 시 세정과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의 월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대상 업종과 규모 제한을 최소화해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날 시의회도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의결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착한 임대인의 7·9월 재산세 1410건, 4억1644만원을 감면했다.

이일영기자 <leeiy@jeonmae.co.kr >

흥덕구청사 5월 준공...마무리 공사 한창

충북 청주시 흥덕구청사 건립공사가 오는 5월 준공을 앞두고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흥덕구청사는 흥덕구 강내면 사리리 14-1번지 일원에 사업비 639억원을 들여 지상 6층 연면적 1만 4947㎡ 규모로 들어선다. 시는 5월 준공 후 집기류 등을 정비하고 사무실 이전작업을 거쳐 7월에 개청할 예정이다.

지난 2018년 12월 착공한 흥덕구청사는 복합체, 모자휴게실 등 민원인 휴게시설과 다목적 스포츠시설, 소규모 공연장 등 주민편의시설을 갖춘다. 또 400대 이상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에너지 절감도 꾀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23일 "시민들의 이용과 업무처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흥덕구청사 공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황주/ 양철기기자 <dyang5@jeonmae.co.kr >

경북도, 통합신공항 연계 농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

공항 인근에 수출단지·가공터운 구축, 이달 중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착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인근에 농식품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된다.

23일 경북도에 따르면 의성을 중심으로 2010억원을 투입해 농식품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신공항 개항 전인 2027년까지 클러스터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에 조성되는 클러스터에는 수출 전문단지·종합지원센터, 농식품 가공터운,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단지, 임대형 스마트팜 산업단지, 농업 분야 벤처창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신선 농산물 수출 전문단지를 육성하고 농산물 선별·저장기능과 수출 물류관리, 해외바이어 상담 시설을 갖춘 수출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한다.

첨단 농식품 가공터운도 조성된다.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단지에 농식품홍보관, 케이(K)-푸드 레스토랑, 로컬푸드 직매장 등

을 갖춰 지역 농식품 우수성을 홍보한다.

초기 자금 등이 부족한 청년에게 스마트팜과 주거시설, 실습교육장을 제공해 농촌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농식품 모태펀드도 활용해 청년이 벤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와 함께 농특산물 인터넷 쇼룸몰인 '사이소' 명품복합센터를 건립해 사이스 입점업체의 미국 식품의약청(FDA) 승인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경북/ 신용대기자 <shinyd@jeonmae.co.kr >



국가균형발전 선언 17주년 기념식. 정세균 국무총리(앞줄 가운데)가 23일 오후 세종시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선언 17주년 기념식에서 내빈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주형기자

전남도, 우주발사체산업 클러스터 조성 본격화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보고...민간 주도 산업생태계 조성 기획

전남도가 우주 발사체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본격 뛰어 들었다.

도는 전남 중앙협력본부 서울사무소에서 윤병대 정무부지사, 국민대학교 윤용현 교수, 고흥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주 발사체산업 클러스터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용역 수행사인 날리자텍스의 추진계획 보고에 이어 윤용현 교수의 주

진 방향 지원, 참석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사업 내용은 나로 우주센터 시설물 확충, 우주발사체 특화 산업단지 조성, 시험 평가인증 기반 구축, 우주과학 복합 테마단지 조성, 전문인력 양성시설 구축 등이다.

도는 나로 우주센터와 연계해 민간기업이 정주하면서 기술 개발과 시험평가인증 등 원스톱 발사체 개발이 가능한 첨단 우주 발사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국내 우주산업을 주도하는 주요 기업을 방문해 현장 실수요를 파악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전문 연구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내실있게 용역을 추진할 방침이다.

윤 부지사는 "고흥을 민간 주도의 발사체 및 위성의 부품 제작, 조립, 시험, 발사를 원스톱으로 수행하는 첨단 우주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며 "플라임가 등 미래비행체 산업과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남익/ 권상용기자 <ksy@jeonmae.co.kr >

수원시, 주거복지 서비스 '한눈에'

경기 수원시의 모든 주거복지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웹페이지가 생겼다. 이 웹페이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어려움에 겪는 시민이 늘어나면서 주거 위기 가구도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영구임대주택 등의 공동전기 요금 지원 등 모든 주거복지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다. 주거복지 사업 설명에서부터 지원 내용과 지원 대상, 그리고 지원 시기 및 지원 금액은 물론 지원 기간, 신청 절차 등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또한 주거복지포털 마이홈, 경기주거복지포털, 수원시 지속가꿈도시 재단 주거복지센터 등 정부와 경기도 및 수원시 협업기관의 주거복지 서비스를 살펴볼 수 있는 홈페이지도 함께 링크했다.

市, 홈페이지에 웹페이지 개설, 주거급여 등 주거복지 서비스 소개

시 홈페이지에 주거복지 정보와 서비스를 소개하는 웹페이지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시 홈페이지 상단 '분야별 정보'에서 도시·주거복지에 접속하면 내용을 볼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이 웹페이지에서는 ▲주거 급여(청년주거 급여) ▲다자녀·정자동 수원휴먼주택 ▲주거취약계층 주거 상황 지원 ▲긴급지원주택(임시거처) ▲긴급 지원(임대주택 지원)

기후·주거복지에 접속하면 내용을 볼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이 웹페이지에서는 ▲주거 급여(청년주거 급여) ▲다자녀·정자동 수원휴먼주택 ▲주거취약계층 주거 상황 지원 ▲긴급지원주택(임시거처) ▲긴급 지원(임대주택 지원)

기후·주거복지에 접속하면 내용을 볼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이 웹페이지에서는 ▲주거 급여(청년주거 급여) ▲다자녀·정자동 수원휴먼주택 ▲주거취약계층 주거 상황 지원 ▲긴급지원주택(임시거처) ▲긴급 지원(임대주택 지원)

수원/ 박신식기자 <sspark@jeonmae.co.kr >

충남도, 가로림만 해양정원 '에타 통과' 총력 다한다

양승조 지사, 조세연 방문 협조 요청

충남도가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사업의 에타타당성조사 통과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양승조 지사는 23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TF)을 방문, 김유찬 원장을 만나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필요성을 설명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양 지사는 "가로림만 해양정원은 지역과 상생하며 지역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어촌, 해양 생태계 보전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며 "국민적 후식지 조성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인 측면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가로림만은 1만 5885ha의 면적에 해안선 길이 162km, 갯벌 면적은 8000ha에 달하며, 해역에는 유인도서 4개와 무인도서 48개가 있다.

특히 해양정원은 세계 5대 갯벌인 서남해안 갯벌에 속하며, 국내 최초·최대 해양생물보호구역인 가로림만을 자연과 인간, 바다와 생명 이 어우러진 글로벌 해양생태관광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도의 역점 과제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 공약 사업이다.

사업 대상 면적은 총 150.85km로 ▲간강만 바다 환경 조성 ▲해양생태관광 점 조성 ▲지역 상생 등이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총 244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대전시, 범죄예방 안전도시 브랜드 가치 높여

동구 자양동, 중구 중촌동 2개 지역 시행

대전시는 도심으로 돌아온 동네 사업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선도사업으로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셉테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대상지 선정위원회의 서류 심사와 현장 확인을 거쳐 동구, 중구 각각 1개소씩 2개소 사업대상지를 선정했다.

동구는 자양동 우송대 주변 지역으로 좁은 골목길, 노후된 건물들과 주차장, 건물 사이 좁은공간 및 사각지대 등으로 인해 주민 보

행 시 불안감과 범죄 피해 우려를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중구는 목종로 70번길 15 즉 생활경로당 일원 주변 주택이 노후됐고, 지리적 프로그와 일링 분석결과 찰도 등 생활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다. 2개소 모두 셉테드 전문가로부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사업 추진은 이달 중 사업 기본 및 실시계획을 착수에 주민 의견, 관계부서 협의 및 셉테드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8월까지 용역을 추진한다.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

bibigo
더비비고

정성을 다해 만든
건강한 음식으로
소중한 사람을
챙길 수 있도록

매일 먹는 한식이
더 건강해집니다

정성으로 만듭니다
건강하게 만듭니다

건강한식
더비비고

커피를 아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덕분에 카누를 찾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카누라면 누가 마셔도 맛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작은 카페 KANU

유통기한 확인하여 식품안전 올바르게

자전거 타기 좋은 수원에서 봄바람 타고 달려요



경기 수원시가 총 연장 326km에 878개 보관대, 타조·반디클 등 공유자전거 확충 등 타기 좋은 자전거도로와 편리한 자전거 인프라 확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 봄내음 즐기는 자전거길

시는 총연장 326.26km에 달하는 자전거도로를 구축했고, 1만 9000여대를 거처할 수 있는 자전거 보관대 878개소를 갖췄다.

경기대 후문에서 광고산으로 향하는 길은 손꼽히는 자전거길이다. 반딧불이 화장실부터 광고산 버스 종점까지 약 4km가 넘는 길로 양 끝에 공유자전거대여소가 있어 자전거를 빌려 타기에도 좋다. 또한 광고호수공원도 잘 정비된 자전거도로를 통해 라이딩을 하면서 눈에 들어오는 프라이부르크 전망대와 잘 다듬어진 조경, 잔잔한 호수와 어우러진 고층 공동주택, 야경 등 볼거리도 다양하다.

주거밀집지역 주변에도 비교적 잘 정비된 자전거도로들이 있다. 권선2동의 아이파크시티 아파트 단지들의 외곽을 따라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가 설치돼 있다. 특히 역삼각형 모양으로 5km 가량 거리가 가로수로 분담돼 자전거도로로 전부 연결되고, 자전거를 타다가 도서관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만나 쉬어갈 만한 곳도 많다.

동탄원천로 옆에도 자전거도로가 잘 형성돼 있다. 원천리천을 따라 펼쳐지는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 인근 가로수의 싱그러움 새순이 반기운 길이다.

● 막힘없는 자전거길

호매실 등 서수원권에서는 금곡동부터 오목천역사거리까지 길게 뻗은 서수원로에 자전거 전용차로를 즐기 좋다. 양방향 차로 옆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돼 있어 왕복으로 6km 이상을 질주할 수 있다. 수원역고가도로를 넘어 별터교차로부터 행정타운사거리까지 2km 구간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가 분리형으로 설치돼 있다.

● 공유자전거 편리하게

시는 도심 어디서든 타고 즐길 수 있는 공유자전거와 주요 거점에서 자전거를 빌려 탈 수 있도록 하는 공유자전거대여소를

를 운영하고 있다.

공유자전거 '타조(TAZO)'는 스마트폰과 GPS(위성항법장치)를 활용해 대여를 위한 스테이션 없이 어디에서나 타고 어디서든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20분에 500원의 기본요금을 내고 타거나 30일 정액권(1만 원)을 활용해 타면 된다. 시는 이달부터 타조 2000대를 추가 투입할 방침이다.

또한 광고산과 행정광장 등에 조성된 공유자전거대여소 '반디클'은 간단한 인적 사항을 제시하고 1000원의 이용료만 내면 마음껏 자전거를 타다가 오후 6시 이전에 반납하면 된다.

● '안전'으로 진화하는 자전거 정책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모를 꼭 착용해야 하고, 이어폰이나 핸드폰 등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야간에 전조등을 사용하고, 우측

타조·반디클 등 '공유자전거' 확충 총연장 326km에 보관대 878개 구축 편리한 인프라·안전 문화 확산 총력

으로 통행해야 한다. 특히 음주 후에 자전거를 운행하면 3만 원, 음주 측정 거부 시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안전하고 편리한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거리에 방치된 자전거를 정비하는 '도심 속 버려진 자전거 클린사업'도 진행하고, 자전거보관대를 세척하는 등 쾌적한 이용 환경 제공에도 힘쓴다.

특히 '수원시 자전거이용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내달 마무리해 향후 5년간 자전거 이용시설을 확충하고 인프라를 정비하는 기본 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관련 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친환경 교통수단의 이용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 박선식기자 <sspark@jeonmae.co.kr>



(상단 사진) 광고호수공원 내 자전거길에서 시민이 자전거를 타는 모습. (하단 사진 왼쪽부터) 수원 광고산 입구에 위치한 자전거 대여소와 반디클 자전거 및 안전모를 빌리고 있는 시민, 권선로 서수원로를 따라 끝까지 뻗은 자전거전용차로. <수원시 제공>

행복한 대한민국 아름다운 선거

4월 7일 수요일

고속 투표

행사해야 할 소중한 권리

투표 투표

기표소

방역소독 완벽! 안심하고 투표하세요.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선거일 투표

4월 7일(수) 오전 6시~오후 8시

사전투표

4월 2일(금)~4월 3일(토)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

투표하실 때 꼭 지켜주세요

- 신분증 반드시 지참하기
- 마스크 착용하고 투표소 가기
- 다른 선거인과 충분한 거리두기
- 방역소독 지켜며 투표하기

선거권 연령 : 18세 이상 (2003. 4. 8. 에 태어난 사람까지 투표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www.nec.go.kr)에서 확인

김정은·시진핑 구두친서 교환 “北中 단결 강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미중갈등 속에서 양국 관계 강화를 강조한 구두친서를 주고받은 사실을 북한 매체가 23일 상세히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는 두터운 동지적 관계에 기초해 두 당사 사이의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해야 할 시대적 요구에 따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 동지에게 구두 친서를 보내 노동당 제8차 대회 정령을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친서에서 “조선반도 정세와 국제관계 상황을 진지하게 연구·분석한 데 기초해 국방력 강화와 북남 관계, 조미(북미) 관계와 관련한 정책적 입장을 토의결정”한 것을 통보했다며 “적대 세력들의 전방위적인 도전과 방해 책동에 대처해 조중 두 당, 두 나라가 단결과 협력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김정은 “적대세력 광란적 비방에도 사회주의 수호”

시진핑 “새로운 형세 하에 중중관계 수호·발전 용의”

김정은은 친서에서 “조선반도 정세와 국제관계 상황을 진지하게 연구·분석한 데 기초해 국방력 강화와 북남 관계, 조미(북미) 관계와 관련한 정책적 입장을 토의결정”한 것을 통보했다며 “적대 세력들의 전방위적인 도전과 방해 책동에 대처해 조중 두 당, 두 나라가 단결과 협력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적대 세력들의 광란적 비방 중상과 압박 속에서도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면서 초보적으로 부유한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괄목할 성과를 이룩하고 있는데 대해 자기 일처럼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이 홍콩과 신장(新疆) 인권 문제로 사법국가로부터 압박을 받는 가운데 중국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특히 “친선과 단결의 위력으로 사회주의 위업을 활력 있게 전진시켜 나가는 것은 당과 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라며 “중국공산당 창건 100돌과 조중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대한 조약 체결 60돌을 맞이하는 올해 두 당 사이 협동이 잘 돼 나가며 조중친선 관계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게 승화·발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 주석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성과도 차치했다. 김 위원장은 “친선과 단결의 위력으로 사회주의 위업을 활력 있게 전진시켜 나가는 것은 당과 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라며 “중국공산당 창건 100돌과 조중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대한 조약 체결 60돌을 맞이하는 올해 두 당 사이 협동이 잘 돼 나가며 조중친선 관계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게 승화·발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 주석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성과도 차치했다. 김 위원장은 “친선과 단결의 위력으로 사회주의 위업을 활력 있게 전진시켜 나가는 것은 당과 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라며 “중국공산당 창건 100돌과 조중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대한 조약 체결 60돌을 맞이하는 올해 두 당 사이 협동이 잘 돼 나가며 조중친선 관계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게 승화·발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발전과 번영을 위해 새로운 적극적인 공헌을 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새로운 형세 하에서 조선 동지들과 손잡고 노력함으로써 중중관계를 훌륭히 수호하고 공고히 하며 발전시키고 두 나라 사회주의 위업이 새 성과를 거두도록 추동하며 두 나라 인민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을 마련해 줄 용의가 있다”며 남북 경제지원 의사를 밝혔다. 이번 구두 친서 교환은 조 바이든 미국 신임 행정부가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압박하는 상황에서 나와 주목된다.

미국은 앞서 15~18일 한국과 일본을 들머 외교·국방장관(2+2) 회담을 열고 북한과 중국을 위협으로 규정하는 한편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뒤이어 18~19일(현지시간)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는 양국이 공개적으로 충돌하며

공통성명조차 내지 못하고 회담을 종료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북중 최고지도자의 전격적인 친서 교환은 양국이 어깨를 곁고 미국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당초 미국의 의도와 달리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라는 관측도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친서 교환의 성격에 대해 “당대당 교류의 측면도 있을 수 있다”면서 “이번 친서 교환이 앞으로 북중관계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친서 자체만 놓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시 주석과 친서나 구두친서를 교환한 것은 이번을 포함해 7차례”라면서 “친서 교환 시점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앞으로 북중관계 동향을 판단하는 데 어떤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을지 평가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野 단일후보 오세훈...박영선과 양자대결

적합도·경쟁력 모두 안 꺾어
양측 지지율 4%p 안팎 격차

롯데 “서울시민에 마음의 빛 갖겠다”
박영선 “오세훈 낫고 실패한 시장”

아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단일후보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선출됐다. 이로써 다음달 7일 서울시장 보선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제1야당 오 후보의 기호 1·2번 양자대결로 압축됐다.

오·안 후보 측은 23일 서울 거주자 3천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적합도’와 ‘경쟁력’을 짚는 백인화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 오 후보가 승리했다고 공동 발표했다.

이번 여론조사 득표율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지만 오 후보가 안 후보에 낙승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여론조사 기관이 각각 적합도와 경쟁력을 800명씩 물어 봤는데, 모든 문항에서 오 후보가 앞서 지지율 격차는 4%포인트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 후보는 이날 “오늘은 위대한 서울시민의 선택의 날”이라며 “위대한 선택이 후회로 되지 않도록 제 모든 것을 바쳐서 승리를 가져오겠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단일후보로 확정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의 새 출발 새 도약을 반드시 이루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후보는 감정에 북받친 듯 눈시울을 붉히며 말하는 목소리로 “시민 여러분께 진 마음의 빛을 일로써 갚을 수 있는 날을 고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0년을 무거운 심정으로 살았다. 가슴 한 칸에 자리한 무거운 돌덩이를 이제 조금은 걷어내고, 다시 뛰는 서울시로 보답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성원해달라”고 호소했다.

오 후보는 “단일화로 정권을 삼판하고, 정권 교체의 길을 활짝 열라는 시민 여러분의 준엄한 명령을 반드시 받들겠다”며 승리를 다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는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단일화 전투에서는 대결했지만, 정권 삼판의 전쟁에서는 제 손을 꼭 잡아달라”고 말했다.



아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단일후보로 선출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소감을 밝힌 뒤 주먹을 불끈 쥐며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진성철기자

박 후보는 이날 “서울의 미래 박영선 시장이 낫고 실패한 시장이냐의 구도”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제 구도는 확실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향후 대응 전략에 관해서는 “생각할 시간을 제게도 줘야 하지 않겠느냐”며 즉답을 피했다. 박 후보 캠프 강선우 대변인은 “‘실패왕’

대 ‘철수왕’의 대결에서 실패왕으로 단일화가 이뤄졌다. 서울시민을 따돌린 까리까리 단일화 쇼”라며 “‘셀프팬데믹’하며 서울시장직을 내팽개친 사람, 입만 열면 거짓말을 쏟아내는 사람, 남은 1년의 서울시정을 정치투쟁에만 쏟을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강 대변인은 오 후보의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과 관련해서도 “몰은 셀프여도 땅이

셀프여서는 안 될 것”이라며 “첫날부터 능숙하게 자기 잇속부터 챙길 후보에게 서울시를 맡길 수 없다”고 했다.

캠프 박영선 대변인도 오세훈 후보를 향해 “아이들 받고는 차별하고 식구들의 보살핌은 꼼꼼하게 챙겼다”며 “오세훈 게이트”의 진실을 밝힐 시간도 눈앞에 다가왔다”고 말했다.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與, 오세훈 단일후보 확정에 총공세 돌입

‘거짓말’ 프레임으로 총공세
“인물론으로 하면 해볼만”
김종인 “롯데 승리 정치상식”

아전 서울시장 보궐선거 아전 단일후보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선출되자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총공세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표면적으로는 오 후보를 두고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후보”라며 기선 제압에 나섰다. 내부적으로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보다 까다로운 상대를 만나는 인식이 팽배하다.

제1야당의 조직력이 뒷받침해주는 데다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고 서울시장 경연이 있다는 점에서 만만치 않은 선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민심이 동요하며 가뜰이나 선거 지행이 여려진 불리한 상황에서 풀어야 할 매듭이 늘어난 셈이다.

민주당은 당장 오 후보를 “MB(이명박) 아바타”, “거짓말쟁이”, “실패한 시장”으로 규정하며 전면전에 나섰다.

민주당은 오 후보의 서울시장 재임 시절 처가의 내곡동 땅 ‘셀프보상’ 의혹을 제기하며 오 후보의 해명이 모두 거짓말임을 입증하겠다고 버르고 있다.

서울의 한 재선 의원은 “큰 담론보다 인물론에 초점이 맞춰지면 해볼 만한 선거”라며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민주당은 일반적으로 재보선 투표율이 낮은 만큼 지지율을 결집해 투표장으로 이끄는 것이 중요한 선거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LH 사태로 정권 견제력이 정권 안정론보다 탄력을 받는 가운데 국민의힘 조직까지 결집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로부터 서울시장 후보 아전 단일화 소식을 전해 듣고 있다. 연합뉴스/하서원기자

한다면 민주당엔 적지 않은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다.

최근 며칠간 민주당의 공세가 안 후보가 아닌 오 후보에게 집중됐던 것도 경계 심리가 더 많이 발동됐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 후보 캠프 관계자는 “오 후보가 상대하기 좀 더 어려운 후보라 생각했다”며 “오 후보는 시장 경연이 있어서 토론을 보면 디테일에 강하고, 국민의힘 조직도 전폭적으로 붙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정치의 상식이 통했다”고 오 후보의 승리를 환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오 후보로의 단일화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단일화 경선에서) 오 후보를 지지해준 서울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선에서 패배한 안 후보를 향해선 “그간 아전의 흥행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해준 것에 대단히 감사하다”며 “본인 스스로 단일 후보가 확정되면 열심히 선거를 위해 돕는다고 얘기했으니, 그와 같은 말이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 후보의 입당이나 국민의당과의 합당 가능성에 대해서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그 일을 추진할 수는 없다”며 “일단 선거를 승리로 이끌고 나 다음 아전 전반기 재편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중심이 되고, 그때 국민의당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결정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이성운 ‘검찰 강제수사는 위법’...출석 요구 불응

공수처 ‘재재이첩’ 요구

검찰의 전 법무부 차관 출금금지 사건 수사 위압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성운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의 4차 소환 통보에 “검찰의 강제수사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이 지검장은 지난 16일 수원지검으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출석요구를 받은 뒤 이 같은 답변을 내놓으면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달라’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지난달 20일에도 수원지검에 수사 중단 위압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내면서 공수처 이첩 요구를 했다.

그는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은 검사의 협의를 발권한 경우 이를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혐의를 발견한 경우”란 범죄를 인정한 경우 외 고발 사건에서도 수사 과정에서 수사해야 할 사항이 구체적인 경우엔 이에 해당한다고 불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법상 현재 검사 사건은 공수처가 맡아야 하므로,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는 위법이라는 논리를 세우면서 재차 사건의 공수처 이첩, 즉 ‘재재이첩’ 요구를 한 것이다.

이 지검장이 출석에 불응하면서 향후 검찰의 강제수사 전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지검장이 현재 서울중앙지검장이고, 유력한 차기 총장 후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장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조처를 하기는 어려울리란 관측이 나온다.

반면, 이 지검장이 검찰 총장에 임명돼 대검의 최종 의사결정자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경우 기소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는 만큼, 검찰이 조기에 강제수사를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이 이 지검장의 요구대로 사건을 공수처에 ‘재재이첩’ 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 12일 검찰에 사건을 재이첩

하면서 “공수처 공소 제기 대상 사건이므로 수사 후 송치해 달라”고 요구한 데 이어 14일 “수사 부분만 이첩한 것으로 공소 부분은 여전히 공수처 관할 아래 있다”는 입장문을 냈으나, 수원지검 이첩심 형사3부장은 “해괴광 축한 논리”라고 정면 비판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사건을 공수처에 다시 넘기지 않고, 이 지검장에 대한 대면조사 없이 직접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 사건 공익신고인은 이른바 ‘황재조사’ 논란을 빚은 김진욱 공수처장, 여론국 공수처 차장, 면담에 입회한 것으로 알려진 사 무관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지난주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또 이들을 포함해 이 지검장과 그의 변호인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행위로 신고했다.

김 처장 등은 지난 7일 오후 공수처에서 김 전 차관 사건 수사 중단 위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과 그의 변호인을 면담 겸 기초 조사했다.

그러나 당시 수사 보고에는 이들이 1시간 넘지 않았다는 내용이 들어있고, 면담 요지조차 담겨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강영훈기자

ECO-FRIENDLY CAMPAIGN

재활용품 분리배출 4원칙

재활용품 분리배출

네가지 원칙만 기억해주세요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로 보다 깨끗한 도시 만들기 위해 모두 함께해요!

1 비운다 용기 안의 내용물을 깨끗이 비운다	2 헹군다 폐기물에 묻은 이물질, 음식물 등을 헹군다	3 분리한다 라벨, 뚜껑 등 다른 재질을 분리한다	4 섞지 않는다 종류 및 재질별로 섞이지 않게 배출한다
---------------------------------------	--	--	---

전세대출·주담대 급증...금융당국 '고삐'

올들어 KB국민·신한·하나 등 5대은행 전세대출만 4.7조 ↑ 전세대출 금리인상 등 대출 조이기...주담대도 올해 8조5천억 증가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본격적인 관리를 내렸다. 22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오후 일부 시중은행을 개별적으로 불러 최근 가계대출 가운데 증가세를 보이는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 현황을 점검했다. 이는 지난 1월 화상 회의를 통해 5대 시중은행들을 소집해 급증세를 보이는 신용대출 점검 회의를 연 이후 처음이다. 금감원은 올해 들어 각 시중은행으로부터 가계대출 현황을 일별로 제출받고 월 단위로 회의를 열어 모니터링하는 등 관리리를 지속해왔다.

이는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은 109조5000억원으로 작년 말(105조2127억원) 대비 4조5879억원(45%) 늘었다. 5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은 1월 말 106조7176억원, 2월 말 108조7667억원, 이날 19일 109조5000억원으로 증가 추세다. 전세대출 잔액이 증가한 것은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임대차3법의 영향으로 전셋값이 상승한 영향이 크다는 게 은행권의 분석이다.

이제 주요 시중은행들은 최근 잇따라 전세대출 금리를 인상하며 대출 조이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신한은행이 지난 5일부터 주택금융공사와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의 우대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우리은행도 25일부터 '우리전세론'의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담보 대출에 적용하던 우대금리 폭을 기존 0.4%에서 0.2%로 낮추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도 올해 들어 8조5000억 원가량 늘어나는 등 증가세가 뚜렷하다.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 19일 기준 48조2888억원으로, 작년 말(47조7849억원) 대비 8조4089억원(18%) 늘었다.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월말 47조3679억원, 2월말 48조1258억원, 이날 19일 48조2888억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금융당국이 이따금 중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한다는 소식이 대출을 미리 받아 놓으려는 가수가 대출 증가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있다. '차주별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 40% 일괄 적용'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핵심이다. 현재 은행별로 평균치(DSR 40%)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차주별로는 DSR 40%가 넘게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를 막아 잠정적으로 DSR 40% 적용 대출자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DSR은 대출 심사 시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만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과수화상병 발생 예방 "사전 방제 해야"

충남 예산군농업기술센터가 과수화상병 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방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23일 농기센터에 따르면 과수화상병의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서는 사과는 신초 발아 전, 배는 꽃눈 발아 직전에 동제화합물 1차 방제약제를 뿌려야 하고, 2차 방제약제는 1차 방제 이후 과수원의 꽃이 80% 수준으로 핀 5~1일 사이에, 3차 방제약제는 2차 방제 후 10~11일에 실시해야 한다. 약제를 뿌린 뒤 방제하는 과수 과해(약해藥害)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제 방제하고 등록약제에 표시된 표준 화상병 예방을 위한 사전방제를 실시해야 한다. 예산군농업기술센터, 담당부서 (세균)의 이동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예산/이훈택기자 <chtlee@jeonmae.co.kr>

경기도, 中企 해외투자유치 10개사 지원...참여기업 모집

10여개 기업 모집...투자유치 소요비용 최대 1800만원 지원 경기도는 '올해 중소기업 해외투자유치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이나 세 쌍기업을 다음달 6일까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중소기업 해외투자유치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2019년부터 추진한 '경기도 글로벌비즈니스 기업매칭 사업'의 하나이며, 도 소재 외국인투자기업의 본사 투자지원까지 포함하는 것이 특징이다. 투자유치를 위해 소요되는 투자유치 활동비, 지적재산권 관련 지원 및 기업가치 평가 등 해외 투자유치에 소요되는 컨설팅 비용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한편, '경기도 글로벌비즈니스 기업매칭 사업'은 ▲중소기업해외투자유치 지원사업 ▲발탁기업지원데스크(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비즈니스 매칭) ▲해외기업 비즈니스 교류사업(해외기업과의 비즈니스 매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기업에게 경기인베스트플랫폼(www.gip.or.kr)을 통해 유용한 시장정보와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영민기자 <han-ym@jeonmae.co.kr>



대파 수확에 바쁜 농민들 23일 전남 신안군 임자도의 한 대파밭에서 농민들이 파를 수확하고 있다. 대파는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와 올해 1월 한파에 이은 눈으로 생산량이 크게 줄어 최근 가격이 1년 전의 약 4배 수준으로 치솟았다. 연합뉴스/ 조남수기자

서산시, 농식품부 원예산업 평가 3년 연속 '최고등급'

충남 서산시가 농식품부 주관 '2020년 추진 원예산업 종합 계획 이행실적 연차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A등급을 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농식품부로부터 산지유통 활성화자금 30억원 무이자 추가지원과 사업 우선 지원 혜택을 받게 됐다. 시는 지난해 농가 조직화를 통한 품질 균일화와 국내 굴지 대형 식품 기업 등 납품처 확보, 통합마케팅을 통해 원예산업 활성화에 적극 나섰다. 특히, 감자, 양파, 마늘, 생강, 달래 등의 전라품종과 알타리무, 고구마, 파, 오이 등의 육성품종 등 10여 개 품종을 대상으로 유통 대형화 및 물량 규모화에 집중했다. 그 결과 2018년 109억원, 2019년 25억원, 지난해 230억원의 판매실적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농협경제지주(주) 서산사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11개의 농협조직과 4개의 농업법인을 조직하여 통합 마케팅을 전개했다. 맹정호 시장은 "시의 적극적인 통합마케팅 추진과 체계적 농가 조직 육성 등으로 이룬 결과"라며 "앞으로도 유통환경 개선 등 원예 산업 성장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산/한성규기자 <hansg@jeonmae.co.kr>

경기농협 '막걸리 그날드림' 과일즙 5만7천개 기증

경기농협은 22일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 장용왕 경기농협본부장, 홍상의 안성원에 농협조합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막걸리 드림' 코커에 과일즙 5만 7000개 약 3000만원 상당을 기증했다. 이번 기증품은 경기농협조합법안에서 참여농협과 농가들이 과일 출하를 통해 마련한 기금으로 조성됐으며, 물품은 경기도산포도주 3만9000개, 배즙 1만8000개 등 과일즙 5만7000개로 제조원가 기준 3000만원 상당이다. 이날 기탁된 과일즙은 사회복지관 25곳을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 장용왕 농협경기지역본부장은 "경기지역 농가들이 생산한 과일이 2023년까지 알라센터, 반쯤센터, 신선센터를 구축해 200명의 실용직을 창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 회사의 인력 채용 시 필요 인력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등 우수인력 확보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시흥/정길용기자 <kyong@jeonmae.co.kr>

시흥시-쿠팡풀필먼트서비스, 지역주민 우선채용 협약

경기 시흥시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지역 주민 우선 채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물류센터 운영을 위한 직원채용 계획 및 진행 상황을 시와 사전 협의하고, 시흥시민을 먼저 고용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시흥물류센터에 서는 올해 말까지 물류 전문가, 소공물 택배 준비원 등 600명 이상을 채용할 예정이며 2023년까지 알라센터, 반쯤센터, 신선센터를 구축해 200명의 실용직을 창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 회사의 인력 채용 시 필요 인력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등 우수인력 확보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시흥/정길용기자 <kyong@jeonmae.co.kr>

춘천에 세계 최초 도심 특화 서비스센터 오픈

아우토플리츠 '폭스바겐 춘천 시티 익스프레스' 운영 경쟁비 서비스 등 제공...사고차량 접수도 가능 강원 춘천에 세계 최초 도심 특화형 서비스 센터인 '폭스바겐 춘천 시티 익스프레스'가 23일 문을 열었다. 폭스바겐 시티 익스프레스는 고객의 접

촉스바겐 춘천 시티 익스프레스는 연면적 198.5㎡ 규모에 일반 정비를 위한 2개의 워크베이(작업대)를 갖췄다. 엔진오일과 필터류 등 간단한 소모품 교환 및 경쟁비 서비스를 제공하며 폭스바겐 원주 서비스센터와 연계해 사고 차량 접수도 가능하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일요일·월요일 휴무)다. 아우토플리츠 문경희 대표는 "유동 인구가 많은 춘천 롯데마트 내에 입점해 시티 익스프레스의 취지를 더욱 잘 살렸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수기자 <HongSS@jeonmae.co.kr>

Wisdom for Winners
이기는 사람들의 지혜
백만장자의 사고방식

"Today's the Day!"
전 세계 성공한 사업가들이 전독자 - 짐 스토벨에게서 얻은 지혜

이기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른가? 나폴레옹 힐 재단에서 성공학의 계보를 잇는 영향력 있는 인물로 꼽은 짐 스토벨! 스토벨에게 있어 '성공은 무엇인가'라는 화두는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과 떼려야 뗄 수 없다. 성공은 반드시 나 자신만이 규정할 수 있고 나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개인적인 명제다.

짐 스토벨 지음 | 유명호 옮김 | 316쪽 | 값 14,800원

이기는 사람들의 지혜

백만장자의 사고방식

나폴레옹 힐 재단의 공식 간행물이자
전 세계 성공한 기업가들이 수십 년간 읽어온 필독서

시각장애를 극복하고 에미상, 올해의 기업인상,
국제인도주의자상 등을 수상한 짐 스토벨의 성공 철학

이기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른가? 나폴레옹 힐 재단에서 성공학의 계보를 잇는 영향력 있는 인물로 꼽은 짐 스토벨! 스토벨에게 있어 '성공은 무엇인가'라는 화두는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과 떼려야 뗄 수 없다. 성공은 반드시 나 자신만이 규정할 수 있고 나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개인적인 명제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제출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올 1월 1일 기준 지역 내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을 내달 7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열람은 마포구 세무1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개별주택가격 열람부를 확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를 통한 인터넷 열람도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당해 주택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마포구 세무1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제출할 수 있고 일시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사이트(www.kras.go.kr)에서 인터넷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다.

서정익 기자 (seo@jeonmae.co.kr)

규정 이모저모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시행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오는 31일까지 청년 구직난 해소를 위한 신규일자리 창출사업(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에 참여할 기업 및 단체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해 경제활동과 직무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청년의 일자리로 기획해 제공하는 것이다.

모집대상은 공고일 현재 관내 소재 기업(단체)으로, 비대면·디지털 기술과 일 경험·직무교육을 결합할 수 있는 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사업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사회혁신경제(☎02-351-6888)로,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청년 인건비의 90%가 지원된다.

정화조 모기 방역 돌입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전염병 매개체인 모기 유충 박멸을 위해 강남구보건소·전문정수업체와 함께 내달부터 10월 말까지 관내 정화조 1만5570개 청소·방역을 실시한다.

구는 주민불편을 유발하는 주택가 대포, 해충, 모기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해 이 사업을 기획했다. 주택가 정화조에 대포 처리하는 모기 유충 10리틀을 얹어 성충 500마리 박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점에 착안했다. 4월은 집중 소독기간으로 정했다. 구는 전체 30%에 해당하는 4688개 정화조 청소·방역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정화조 내부와 맨홀 주변 성충 소독을 마친 뒤 모기 유충 구제용 약품을 정화조에 뿌려 방역하는 방식이다.

구민과 함께하는 나무심기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제76회 식목일을 맞아 오는 27일 삼성산2터널 상부공원(금천초등학교 앞)에서 '구민과 함께하는 나무심기' 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는 다문화가족이 함께 참여해 식목일의 의미를 되새기며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참여인원은 100인 미만으로 제한하며, 참여자에게 이팝나무와 산철쭉 등 나무심기와 안양천의 아름다운 공간을 소개하는 책자를 배부할 예정이다.

45개 이웃만들기 지원사업 진행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이웃만들기 지원사업'의 심사를 진행, 관내 14개 동에서 총 45개의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을 진행한다.

2021년 함께 Green 마을공동체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웃만들기 지원사업은 주민의 마을생태계 진입과 주민관계망 형성을 지원하는 가장 기초단계의 공모사업이다.

2021년 이웃만들기 지원사업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3명 이내 5명 미만 소규모로 참여인원을 제한한다. 또한 어르신·아동 등 소외계층의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고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코로나19로 소외해진 마을공동체와 이웃관계망을 복원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다. 구는 특히 자원순환과 재활용 활성화 등 환경 관련 의제를 우선으로 선정한다.

'아트피·천식 안심학교' 참여기관 모집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내달 9일까지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아트피·천식 안심학교'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아트피·천식 안심학교'란 아트피 피부부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 전문교육을 하고, 시설 내 알레르기 질환 악화 요인 제거를 통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어린이와 학생이 해당 안심학교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기관 중심의 예방관리 프로그램이다.

안심학교를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신청서와 개인 정보 동의서를 작성 후, 양천구 보건소로 공문, 이메일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초등학교는 보건교사가 상주하는 경우, 어린이집·유치원은 보육교사 수가 5인 이상일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송파구, 풍납동 일대 주택신축 시 발굴비용 전액 지원

'풍납토성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3일 공포 주민 부담하던 발굴비용...국가·발굴기관서 전액 지원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일대에서 주택신축이나 소규모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진행할 경우, 문화재 발굴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오는 6월 10일 시행예정인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세부 규정을 담은 시행령이 국무회의 통과 후 23일 관보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풍납동 일대는 2015년에 개정된 권역별 보존관리 기준에 따라 대지면적 792㎡가 넘는 정비사업 진행 시 주민(시행사) 부담으로 발굴조사를 진행해야 했다.

사업면적에 따른 발굴 비용이 1000㎡ 기준 1억5000만 원, 1만㎡ 기준 6억 원 이상으로 막대한 비용이 소요돼 원활한 사업추진에 큰 부담이 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는 문화재청, 서울시와 협력해 시행령 제8조 주민지원사업 세부내용에 '보존·관리구역 내 시굴·발굴 사업'을 포함시켜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며 원활한 정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는 주민이 정비계획을 송파구에 신청하면 문화재청(서울시) 승인을 통해 국가 및 공공 발굴연구기관에서 발굴비용을 지원한다.

특히 풍납동 거주환경 개선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해 ▲백제역사문화 체험학습장 설치 지원사업 ▲도로·주차장·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사업 ▲도서관·전시관 등의 건립 운영 사업 ▲주민단체의 지원사업 등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특별법 시행령에는 문화재 관리와 주민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이 포함됐다.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 절차, 보존·관리사업의 추진 방향 및 세부 추진계획 등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박성수 구청장은 "최근 풍납동 일대에서는 소규모 정비사업과 3권역 일대 도시재생사업이 궤도에 오르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여러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며 "오는 6월 특별법이 시행되면 다양한 주민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는 풍납동토성일대.

(송파구제공)

사업을 추진해 풍납동을 명실상부 문화재와 주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역사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박창복 기자 (parkch@jeonmae.co.kr)

종로구, 학교에 방역인력 배치...지역사회 감염 막는다

등하교 때 방역검사

교실·급식실 방역소독 실시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준)는 이날 8일부터 오는 6월까지 관내 교육기관 27개소에 '학교생활 안전지킴이'를 배치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고 있다고 밝혔다.

'안전지킴이'는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학교 내 방역인력을 제공하고, 취약계층 주민을 위한 공공일자리를 마

련해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에도 기여하려는 목적이다.

올해 선발전 인력은 신학기 대면수업이 확대된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에 중점 배치했다. 등하교 때 방역 검사, 교실과 급식실 등 방역소독 업무를 맡았다.

앞서 구는 지역방역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취업 취약계층, 코로나19로 실직이나 폐업을 경험한 자 등 생계 지원이 필요한 주민 27명을 최종 합격자로 발표했다. 현재 학교별 상황에 따라 하루 최대 6시간을 근무 중이다.

구는 아울러 미래사회의 주역인 아동청소년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학교 교육을 다양한 방식으로 전폭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준 구청장은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신뢰받는 교육 환경 마련을 위해 방역인력을 선발전하고, 교육청 등과 협력해 공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임형찬 기자 (limhc@jeonmae.co.kr)

광진구, 150억원 규모 광진사랑상품권 44일만에 완판

발행액 대비 50% 75억 원 사용 완료...골목상권 살리는 효자 역할 '톡톡'

서울 광진구가 소상공인을 위해 발행한 150억원 규모의 광진사랑상품권이 완판됐다.

광진구(구청장 김선갑)는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150억 원 규모의 광진사랑상품권을 발행, 소상공인과 구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출시 44일 만에 조기 완판됐다고 밝혔다.

23일 구에 따르면 이번 광진사랑상품권은 발행일 당일에는 판매액이 61억 원을 넘어섰으며, 총 판매액을 일일 판매액으로 환산할 경우 하루 평균 약 3억 4000만 원이 판매됐다.

이번 판매기간 동안 상품권의 결제

금액은 75억 원 상당으로, 발행액 대비 50%가 사용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 가맹점의 매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됐다.

광진사랑상품권은 구민들에게는 할인된 가격과 소득공제 혜택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제로페이 가맹점에는 결제수수료 감과 매출 증대 효과까지 제공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현재 광진구 내 제로페이 가맹점은 마트, 학원, 카페 등 9500여 개에 이르며, 지난해 4월 광진사랑상품권 첫 발행 이후 약 4400여 개가 증가하는 등 제로페이 가맹점 수와 소비자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 추세세를 보이고 있다.

이신우 기자

(leesw@jeonmae.co.kr)

중구 약수공가협동조합, 행정안전부 지정 마을기업 선정

공가 발굴·리모델링으로 환경개선·취약계층 임대·일자리 창출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약수동 노후주택 환경개선에 앞장선 '약수공가협동조합'이 2021년도 행정안전부 지정 마을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마을기업은 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창출하고 그 수익을 통해 지역공동체 이익을 실현하는 마을 단위 기업으로, 지정되면 컨설팅, 판로지원, 홍보 등 다양한 경영지원을 위해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약수공가협동조합은 400여 세대의 노후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약수동 동호터널 일대의 오랫동안 방치된 동네 빈집들을 리모델링 후 취약계층에게 보급하는 사업을 2018년부터 해왔다.

이 사업은 지역의 골칫거리인 빈집을 활용해 마을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인근 주민들의 지역문제 인식과 해결의지로부터



서양호 구청장(우)과 약수공가협동조합 정준호 이사장(좌)이 마을기업협약식을 체결했다.

(중구제공)

민들의 지역문제 인식과 해결의지로부터 시작했다. 슬럼화되는 동네를 지켜본 빈집 주민들과 이웃들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빈집 주인과 협의해 우

선 5년간 무상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수선하여 주거 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월세로 보급하는 '약수보금자리'임대주택 사업을 기획했다.

2019년에는 뜻을 같이하는 주민들이 공동 출자금을 모아 공사비, 수선비 등을 총담하고 주민의견을 나누는 사회적경제기관 협동조합을 결성했다.

2018년 9월 '약수보금자리'1호를 개장한 후, 2020년까지 총 9개 주택을 리모델링하며 주민주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롤모델로 주목받았다.

구는 지난 18일 협약식을 체결해 지속적인 사업모델 컨설팅은 물론, 서울시주민기술훈학교/사업 등 공모사업을 신청해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다방면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서정익 기자 (seo@jeonmae.co.kr)

'강서먹자골목'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수리'·BI 개발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승)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캐릭터와 BI(Brand Identity)를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을 브랜드화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살리고 누구나 방문하고 싶은 친근한 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새로 개발된 캐릭터의 명칭은 '수리'다. 천연기념물 제324호로 보호되고 있는 수리부엉이에서 착안했다. 특히 수리부엉이는 복을 가져다주고 지혜를 상징하는 동물로 강서먹자골목이 영장이자 절망의 상권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염원을 담았다. 동물 캐릭터를 활용해 친근하고 귀여운 이미지를 부각했다.

를 부각했다.

BI(Brand Identity)는 다양한 음식과 길거리를 의미하는 포크와 마이크를 이미지화 했다. 노란색과 빨간색 등 눈에 잘 띄는 색상을 활용, 시인성을 높였다.

구는 제작과정에서 구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담았다. 지난 10월 '강서먹자골목 브랜드 공모전'과 먹자골목 상인 대상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브랜드와 캐릭터에 바탕이 되는 기본 아이디어를 모았다.

구는 새롭게 탄생한 브랜드와 캐릭터를 활용, 온·오프라인 홍보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먹자골목 상인연합회는 "독자적인 브랜



강서먹자골목 BI. (강서구제공)

드와 캐릭터가 탄생하게 되어 기쁘다"며 "어려운 시기지만 강서먹자골목이 강서구 대표 상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윤미 기자 (kym@jeonmae.co.kr)

강남구의회, 제292회 임시회 파행...안전처리 무산

서울 강남구의회(의장 한홍대)는 23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해 8건의 안건을 처리하려 했으나 의결 정족수 미달로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파행, 산회 했다.

이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김진홍 의원(국민의 힘)의 5분 발언과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의 민주당 규탄 성명에 불만을 토로하며, "민생을 챙겨야 하는 기초의회에서 국회의원들이나 할 법한 정쟁을 유발하는 발언 등을 한 행위는 부당하다"며 본회의

장에 불참한 것.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재민 의원 등 5명의 의원의 5분 발언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된 ▲강남구 민간위탁 운영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건 ▲2020회계연도 강남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건 등 8건의 안건을 의결, 처리할 예정이었다.

구의회는 향후, 원포인트 의사일정으로 다시 임시회를 소집해 처리하지 못한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박창복 기자 (parkch@jeonmae.co.kr)

구로구, 마을버스 운수업체 지원협약 체결

운수종사자 긴급파견

구 재정지원 등 공동대응책 추진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마을버스 운수업체와 지원협약을 체결했다.

구는 "법정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재정 여건이 열악한 마을버스 운수업체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라며 "이러한 위기 광진사랑상품권 150억 원 추가 발행을 통해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구는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속적인 소비 촉진을 위해 지난해 235억 원에서 올해 65억을 확대해 상·하반기 300억 원 규모의 광진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이신우 기자

(leesw@jeonmae.co.kr)

노원구,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확대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어린이를 보호하는 교통환경을 강화하고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통학로 실태조사 용역 등을 실시한다.

먼저 초등학교 보호구역의 과속단속카메라를 확대 설치한다. 지난해까지 14곳에 머물던 과속단속카메라를 올 상반기에 노원초등학교 등 28곳에 설치 완료한다. 사고 예방에도 추가 설치한다.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29곳에는 신호와 속도위반 단속을 겸하는 다기능 단속카메라와 신호등이 미설치된 7곳에는 과속카메라를 설치해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구는 어린이 보호구역 전소자 용역 결과와 어린이집, 유치원, 녹색어머니연합회 의견과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교통시설물

재정비 보수 보강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12억원을 투입해 차선 제도 식(32,678㎡),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 정비(3,890㎡), 미끄러움 방지포장(10,092㎡) 등을 실시하고 LED표지판, 안전펜스 등 안전표지 시설물 신설 73개, 교재 28개, 철거 23개를 실시했다.

올해는 구비 2억원을 투입해 어린이보호구역 121곳의 수조조사를 거쳐 디자인 바닥포장(3,000㎡), 노면표시(20,000㎡), 안전표지판 50개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도로 칼라블록 포장도 실시한다. 밝고 독특한 디자인으로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기능으로 지난해 4개교에 이어 올해는 노원초교, 장원초교, 연지초교의 도로포장을 실시한다.

홍승수 기자 (HongSS@jeonmae.co.kr)

동대문구, 제기동 고대앞마을 도시재생 주민공모

4월 9일까지 공모사업 접수

공동체 활성화 방안·지역의제 발굴 등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오는 29일부터 4월 9일까지 '2021년 제기동 고대앞마을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고대앞마을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지 내 거주민 또는 생활권자(직장, 학업 등)로 구성된 3인 이상의 주민 모임, 동대문구 소재 단체(비영리법인단체, 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등)만 참여 가능하다.

공모분야는 '일반공모'와 '기획공모'로

나뉜다. 일반공모에서 주민 모임을 형성하기 위한 이웃만들기 사업에는 건물 최대 100만 원, 지역 의제 발굴 및 지역자원활용사업 등을 위한 사업발굴에는 건물 최대 500만 원까지 각각 지원된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재생사업 연계 및 기존사업의 심화발전을 위한 기획공모에는 건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이나 단체는 동대문구청 누리집(www.ddm.go.kr) 고시·공고 및 블로그(https://tinyurl.com/godaeagonmo)에서 신청 서류를 받고 작성해 제기동 고대앞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동대문구 안암로 148)를 방문하거나 이메일(godaepmaeul@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박창복 기자 (parkch@jeonmae.co.kr)

성동구, 성수동 ICT 첨단산업·벤처·전통산업 융복합 개발

서울시 성수IT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수정 가결 통과

서울 성수동 성수역·건대입구역 사 이 준공업지역이 ICT기반 신성장 4차 산업 중심지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 된다. 이는 서울시가 최근 열린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성수동2가 277-28번지 일대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은 심의에서 수정가결된 내용을 반영해 4월 중 14일간 재열람 실시하고 5월에 결정고시 할 계획이다. 23일 구에 따르면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기다려왔던 지역 내 대규모 필지는 물론이고, 준공업지역 용적률 400%도 활용하기 어려웠던 소규모 필

지의 최고높이 규제에 대폭 완화돼 지역 내 노후건축물의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수IT 산업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에서 고시한 IT·R&D 관련 업종이 입지하면 권장업종 확보면적에 따라 용적률과 최고높이를 완화할 수 있고, 건물연면적의 50%이상 확보 시에는 최대 12배까지 완화된다. 또 권장업종(권장업종, 산업종사자 편의시설) 확보 및 보행거점 조성을 위한 공개공지 계획 시 용적률을 추가로 최대 1.2배까지 완화 받을 수 있다. 첨단산업 권장업종과 공개공지를 같이 계획하면 용적률은 최대 560%, 높이는 최대 84-120M까지 완화 받아 규모 있는 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대상지는 산업시설이 밀집되어 있으나 종사자 수에 비해 음식점, 병·의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일대 모습. <성동구 제공>

원, 운동시설 등과 같은 편의시설이 부족해 주요 보행가로에 대해 산업종사자 편의시설을 저층부 권장용도로 계획, 전면공지 조성계획을 수립해 열악한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등 산업생태권 환경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용적률, 높이 등 규제를 완화해 규모 있는 개발을 유도하고 산업환경을 개선, 성수동을 ICT기반 신성장 4차산업 중심지 및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신우 기자 <leesw@jeonmae.co.kr>

영등포구, 당산생활권 도시계획 청사진 그린다

'2030 서울생활권 계획' 따른 당산·양평생활권 구역제 시행계획 용역 착수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원일)는 당산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착수에 돌입한다. 이를 위해 구는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참여단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 소통과 의견 조율을 통해 주민제고도 높은 전략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생활권별 전략사업을 도출하고, 지역별 주요 정책, 현황을 바탕으로 핵심사업을 선정해 추진 절차, 운영체계, 재원조달계획 등 세부 추진사항을 숙도감있게 진행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거점별 중심지 육성계획, 주민의견수렴과 지역환경을 고려한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 방안을 구상하고, SOC 시설 용도, 필요 규모 등 공공·민간자원과 연계한 공급방안도 검토한다. 이에 오는 29일까지 '당산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용역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 실행계획 수립용역 시행을 희망하는 업체는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입찰참가 등록 후, 자격을 전자 투찰하고, 제안서와 가격제



당산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대상지. <영등포구 제공>

안서를 작성해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정된 업체는 12개월 동안 과업을 수행하게 된다. 대상지인 당산생활권은 당산2동과 양평2동, 2개의 행정동을 포함하는 면

적 4.55㎢ 규모의 부지로, 인구 약 5만 7천 명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한강·안양천·선유도공원이 위치해 생태자원 활용도가 높고, 당산역, 선유도역 등 지하철 2·9호선과 서부간선도로가 지나는 등 지역 내 교통접근성이 매우 우수한 곳으로 손꼽힌다. 반면, 공공존재지역에 대한 계획적 관리가 요구되는 점, 저층 노후주택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점 등 보완해야 할 과제들도 안고 있다. 구는 실행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내달 본격적인 착수에 돌입해 2022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용역에 주력할 방침이다. 박창복 기자 <parkch@jeonmae.co.kr>

강북구, 장애인 코로나검사 문턱 낮춰

선별진료소 수어통역 영상전화기 가동 청각·언어장애인·수어통역사·의료진 실시간 영상통화 기능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청각·언어 장애인들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에 수어통역 영상전화기를 설치했다. 영상전화기는 태블릿 형태로 장애인에 화면을 누르면 수어통역사와 자동 연결된다. 청각장애인의 수어는 통역사를 거쳐 의료진에게 실시간 음성

으로 전해진다. 또 통역사는 의료진의 응송을 다시 장애인에게 수어로 실시간 전달한다. 종전까지 청각·언어 장애인은 코로나 검사를 받으려면 손글씨를 쓰거나 수어통역사와 함께 가야 했다. 이번 영상전화기의 가동으로 장애인들이 언어 장벽 없이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구는 영상전화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선별 진료·검사소의 무선통신망을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선별 진료·검사가 없어지면 수어통역 영상전화기는 민원창구 등에 비치할 계획이다. 박겸수 구청장은 "수어통역 영상전화기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어려움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애인의 권리를 증진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꾸준히 힘쓰겠다"고 말했다. 홍상수 기자 <HongSS@jeonmae.co.kr>

강남구의회, 제292회 임시회 5분 발언 봇물

이재민 의원, 대치유수지주민편의시설 설치방안 검토 김형대 의원, 정신적 장애인 선거권 보장·편의제공·입법 촉구 김진홍 의원, 민주당 대국민 사과와 서울·부산 재보궐 선거 후보 사퇴해야



이재민 의원 김형대 의원 김진홍 의원

서울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는 23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3명의 의원이 주요현안에 대한 5분 발언에 나섰다. 이재민 의원(상정 1·2동·대치2동)은 "지역 내 구립체육시설이 부족하고 지역별 편차도 크다"며, 대치유수지를 북쪽에 주민편의시설을 설치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제안했다. 김형대 의원(개포2동, 일원1·2동)은 "오랫동안 정신적 장애인 선거권 행사에 배제돼 왔다"며 "투표편의 서비스를 피성년후견인을 포함한 정신적 장애인들에게는 아직 제도적으로 미비해 사실상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인원은 극소수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

한 2인을 동반해 투표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현재의 투표보조인제도가 정신적 장애인들의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며, 정신적 장애인들이 사용하기 쉬운 기표보조용 구도 개발, 제공돼야 하고, 필요한 경우 거소투표도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발달장애, 정신장애가 있는 피성년후견인이라도 선거권을 보유했어야 한다는 사실조차 잘 몰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홍 의원(개포 1·4동)은 "서울·부산 재보궐 선거는 민주당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권력형 성추행 범죄로 인해 무려 824억이라는 국민혈세를 하지 않아도 되는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824억은 강남구 전체 초·중고 80개 학교 6만여 명의 아이들에게 8년 동안 무상 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은 자기반성 없이 무공천 원칙을 뒤집고,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 후보를 냈다"며 "책임정치를 포기하며 국민들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 없는 서민들에게 피눈물 내게한 LH 사태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박원순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후보를 사퇴하는 것이야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복 기자 <parkch@jeonmae.co.kr>

서울시선관위, 코로나19 대비 투·개표 특별 관리대책 마련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내 특별사전투표소 운영 등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가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투·개표 관리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23일 서울시와 함께 코로나19 확진으로 생활치료센터에 격리된 유권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특별사전투표소가 설치된 남산생활치료센터에서 합동점검, 사전투표소의 설치를 진행, 선거인의 입장에

서 투표에 불편함이 없는지 전반적인 절차를 확인했다. 또 사전투표일은 물론 선거일을 전후해 서울시 관내 모든 투·개표소에서 코로나19 방역 작업을 실시하고, 투표소 및 개표소에서 사용할 각종 방역 물품 준비를 완료했다. 아울러 선거일 당일 자가격리자는 사전 신청을 통해 투표를 할 수 있으나, 일반 선거인과 접촉이 없도록 투표시간-동선 분리 후 임시

표투표소에서 투표하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투표사무관제자는 전원 마스크와 의료용 장갑을, 발열체크·임시표소 전담요원과 선거인 본인 확인 담당 사무원은 안면보호구를 추가 착용하며, 개표사무관제자는 마스크, 안면보호구, 위생장갑을 착용토록 하여 투·개표절차가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준비 중이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발열호

흡증상이 있는 선거인은 임시표소에서 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유권자가 안전하게 투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하고 있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라며 서울시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박창복 기자 <parkch@jeonmae.co.kr>

도봉구의회 박진식 의장, 창3동 방치된 자투리땅 3개소 찾아 환경정비 제안

서울 도봉구의회 박진식 의장은 주민 민원 현장인 창3동 방치된 자투리땅 3개소(창동 810-1~3번지)를 방문했다. 최근 방문에는 구청 소관부서와 창3동주민센터 관계 공무원, 주민이 동행했으며, 환경정비가 필요한 현장을 함께 꼼꼼히 점검했다. 박 의장은 우선 음식쓰레기 등 무

단투기와 고사목 등으로 방치돼 있는 창동 810-3번지 자투리땅을 둘러보며 고사목 수종을 개량해 화단을 조성할 필요가 있고, 우기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경계석 설치와 복도를 제안했다. 박 의장은 이어 미류수거함 주변에 각종 쓰레기 무단투기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창동 810-1번지를 찾

았다. 창3동 역사문화회관 안내표지판이 있는 곳으로 박 의장은 기존의 미류수거함을 철거하고 역사문화회관 안내표지판을 이설해 경계석 연장과 복도, 배곡히 심어진 수목의 간격 조정 등을 통해 주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 의장은 마지막으로 무단투기로 이용되고 있는 도로경계화단이 있는

창3동 810-2번지를 찾았다. 이곳은 화초가 무성하고 정선중에 걸쳐있는 위험수목, 우기시 토사유출 우려가 있는 자투리땅으로, 박 의장은 이곳에 화살나무 등을 식재해 무단투기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위험수목 제거, 경계석 높이 조정을 통한 토사 유출 예방을 요청했다. 서정익 기자 <seo@jeonmae.co.kr>

동작구, 맞춤형 취업지원 추진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올해 말까지 '2030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추진으로 20개 기업과 구직자 34명이 참여했다. 참여대상은 구인 기업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내 업체로서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중소기업 ▲5인 미만 기업 중 청년창업 기업 및 벤처기업, 문화콘텐츠사업체 ▲사업취지에 맞는 비영리기관 등이다. 구직자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동자구민 또는 관내 대학교(원) 졸업(예정)자, 올해 구가 실시하는 일자리 사업 참가자 등 30명이다.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기업에는 ▲3개월 간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45만원)를 지급하는 고용보조금 ▲직무교육, 멘토링 운영시 월 8만원의 사내

멘토링비, 채용자에게는 ▲월 최대 30만원까지 자기 개발을 위한 교육비를 지급하며, 기업별 최대 2명까지 지원가능하다. 단, 이번 사업을 통해 채용, 입사한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과 구직자는 오는 9월 30일까지 참가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고용보험가입 피보험자 확인 증명 등 서류를 구청 일자리정책과 방문 또는 이메일(7101415@dongjak.go.kr)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에 참가한 기업에 대해서는 접수 후 일주일 내 현장으로 방문해 최종 선정하고, 구에서 운송 중인 소셜 헤드헌터를 통해 맞춤형 구직자 매칭을 실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정책과 (☎02-820-1179)로 문의하면 된다. 서정익 기자 <seo@jeonmae.co.kr>



<종로구의회 제공>

종로구의회, 2020 회계연도 결산감사위원 위촉

서울 종로구의회(의장 여봉부)는 최근 의정실에서 최경에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전 공무원 김영희, 최원세무회계사사무소 대표 최규원, 도원회계법인 이사 양민선씨를 '2020 회계연도 결산감사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번에 선임된 결산감사 위원들은

내달 1~30일 한달간 2020년도 종로구 예산집행 전반에 대해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첨부서류(22종) 등을 검사하고 이를 법인 이사 양민선씨를 '2020 회계연도 결산감사위원'으로 위촉했다. 임명장 기자 <limch@jeonmae.co.kr>

관악구의회 제275회 임시회 폐회

'미안마 군부 쿠데타 규탄' 결의

서울 관악구의회(의장 김용환)는 최근 1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75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심의한 안건과 행정사무감사제처 등을 처리하고 미안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적 헌정질서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임시회 안건은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주무열 의원 대표발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임춘수 의원 대표발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기중 의원 대표발의) ▲육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육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익화 의원 대표발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건 등 9건이다. 이기중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지난 해 감강한 축제의 공예문화산업 활성화 사업에 대한 내부감사 결과 수의 계약 사유 부적정, 사후계약, 분할계약, 준공검사 소홀 등이 지적돼 1500만원의 환수조치가 결정됐다"며 "빠른 환수조치와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적 제한 조치를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익화 의원은 구정질문에서 "봉천동 쪽고개 ID 21-181 버스정류장은 진입금지구역 내 위치하고 맞은편 ID 21-189 버스정류장은 정지선 안에 있어 두 곳의 버스정류장이 이진돼야 한다"며 "관악로 서울대 정문도로가 강남순환로 개통 후 이용차량이 증가해 버스이용 주민불편이 가중됐고 주변 교통 혼잡 등으로 인해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홍상수 기자 <HongSS@jeonmae.co.kr>

성장현 용산구청장, 미안마 민주주의 회복 기원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사진)이 지난 22일 구청 집무실에서 '미안마 민주주의 회복 응원 캠페인'에 동참했다. 지난해 미안마 군부가 일으킨 쿠데타에 불복, 시위를 이어오고 있는 미안마 국민들에게 연대와 지지를 보내기 위해서다. 성 구청장은 "군부정권 OUT, 문민정부 GO" 피켓을 들고 사진



박창복 기자 <parkch@jeonmae.co.kr>

또 제물포고 이전 논란 <下>

“학교 이전은 원도심 활성화 아예 포기하는 일”

지역 시민단체·정계 잇따라 지적
“교육환경 개선 충분한 노력 기울여야”

●원도심 교육 불평등 심화

시민사회단체와 지역 정계 일각에서는 그러나 잇따른 원도심 학교 이전이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한다. 지난 1998년에는 중구 인천여고와 동구 송림동 박문여중·여고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로 이전했다. 동구의 유일한 여중이었던 박문여중이 신도시로 이전한 뒤로 중학교가 줄어들어 학생들의 경우 집에서 멀리 떨어진 학교로 통학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했다. 현재 동구에는 동산중·제봉중·화도진중 등 중학교 3곳이 있지만, 남녀 공학인 화도진중을 제외하고는 모두 남자중학교다.

오는 2024년 입주자 목표인 금송지구와 송림 1·2지구 등 중·동구의 재개발 사업으로 추가 인구가 유입될 경우 학생인구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동구 측은 일부 여학생이 가까운 미추홀구의 선화여중이나 인화여중으로 진학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 초·중학교 통합 학교를 신설을 시교육청에 건의하기도 했다.

최갑재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공동대표는 “학생인구 감소로 각 학교의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현상인데 이를 학교 이전으로 무마하려 한다”며 “동구의 경우 있던 학교를마저 송도로 옮겨간 뒤로 짧은 부모들이 땅값이 아사를 가 공평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10년 만에 다시 불거진 학교 이전 문제도 지역내 팽팽한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제물포고 전경. 이전이 필수라는 의견과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의견이 팽팽선을 이루고 있다. <인천교육청 제공>

특히 시교육청이 원도심 교육 환경 개선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갑작스럽게 학교 이전을 추진했다는 반발도 있다.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강화·옹진)은 “학교 이전은 해당 지역의 교육 공동화와 학생 자녀를 둔 가구 유출로 이어진다”며 “원도심 학생 수가 줄었다고 지역 명문학교를 옮기는 건 원도심 활성화를 아예 포기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남궁 형 인천시의원은 “관계 기관과 협력해 원도심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명문고를 이전하겠다는 것은 원도심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도성교육교육이 주장한 ‘원도심 활성화 촉진’에도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인천 /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중구 ‘월미권역 경관개선 사업’ 1·2단계 연내 마무리

월미도 진입로 정비 등
7개 핵심 과제 도출

인천 중구가 월미도 일대의 우수한 경관을 보전·관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월미권역 경관개선사업 1·2단계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동안 월미도의 지역가치 상승 및 입지 강화 방안으로 지난 2019년부터 민·관 TF회의 및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월미권역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작년 4월 경관기본계획 및 1단계 시범사업 실시계획 용역을 착수, 인천시경관심의회 거쳐 이달 5일 용역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월미권역 경관개선사업’ 기반계획 7개 핵심 과제를 도출했다. 현실성 있는 경관사업 등 실행계획과 민·관이 동시다발적으로 시행하는 각종 사업들 간의 경관 조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구는 시범사업으로 1단계 월미도 진입로 보행구간 정비 공사과 2단계 월미문화의거리 보행구간 정비를 위한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을 3월 중 발주했으며, 공공영역에 해당하는 월미권역 경관개선사업

1·2단계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월미권역 경관개선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민간 건물 및 상가 간판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경관개선을 유도하고자 지난 2월 주민설명회를 실시했으며, 생생하고 현실적인 주민 의견 청취 및 주민 참여를 독려, 이를 반영한 사업 추진방향 설정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연내 ‘월미권역 경관개선사업’ 1·2단계 시행과 민간의 경관개선 참여가 완료되면, 포스트코로나에 발맞춰 월미도에 대한 관광급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인성(사진) 구청장은 “월미권역 경관개선사업으로 중구와 주민이 함께 월미도의 도시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경관관리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며 “자유공원~차이나타운~월미도 간의 연계성 있고 조화로운 경관 형성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동구 “만석·화수동 일대 해안산책로 조성”

1단계 5월·2단계 9월 완료
도시기반시설 확충 총력 전개

허인환(사진) 인천 동구청장은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조성사업은 1990년대 이후 대형공장 및 군사시설로 인해 접근이 단절된 만석·화수동 일대 해안을 산책로로 조성, 주민에게 잃어버린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구는 현재 1단계 1.52km 구간은 5월에 완료할 계획이며, 2단계 0.9km 구간의 경우 이달 착공에 들어가 오는 9월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군사지역의 여독과 무거운 이미지에서 벗어나 자연친화적인 형태의 산책로로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어 웨이브형 데크, 포토존, 해상 전망데크 등이 설치되며, 이용자 안전을 고려해 산책로 전체구간을 자전거 우선도로와 일방통행로로 지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구간 바로 아래에 위치한 입자수로 매립공사도 올 9월 완공 예정에 있어 월미도와 인접까지 이어지는 기존 자전거 도로와 해안산책로가 연결될 계획이다.

허 구청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전망대에서 동구의 유일한 삼인 물치도와 영종



국제도시를 조망할 수 있는 가족 단위 산수공간으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현재 동구 전역에서 재개발 사업과 주거환경 개선 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등이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구간의 총 면적은 1.049km로 동구 전체면적 7.195km의 14.57%에 이른다. 실제에 제개발구간 중 송림5구역은 지난해 11월 준공 뒤 22세대가 입주 중에 있으며 금송구역, 송림1·2구역, 송림3지구, 송림4구역 등 모두 9577세대는 보상에 들어가 올해 중 이주가 개시될 계획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대한학교지구역은 올 6월 준공 후 920세대가 입주 예정에 있고, 송림초교주변구역의 경우 내년 8월 준공으로 2562세대 입주 예정이다. 허 구청장은 “지역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들이 마무리되는 2024년 무렵에는 동구의 인구가 1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 /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해상풍력, 지역주민 소통이 최우선”

인천시, 해상풍력발전사업 관련 24~31일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섬 주민·어업인과 소통·공감 통해 ‘공존·상생 방안’ 마련 나서

인천시가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을 본격화한 가운데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사업 추진 예정지역인 덕적면과 자월면 각 도서, 용유·무의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유준호 시 에너지정책과장은 “4월에는 어업인들에 대한 설명회도 계획 중이다”라며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은 지역주민, 어업인들과의 소통·공감을 통해 공존·상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수 있는 지가 성공적인 사업추진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현재 시는 한국남동발전과 함께 용유·무의 인근 해상과 덕적해상(굴업도 남서측)에 각각 발전용량 300MW, 총 600MW, 예산 335억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 중으로 작년부터 풍황계측기를 설치해 1년 동안 사업성을 분석하고 있다.

향후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먼저 주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판단 하에 인구가 소규모인 도서지역이고 교통편이 불편한 지역사정을 감안,

모든 도서에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개최를 계획한 것이다.

설명회 일정은 24일 문갑도·굴업도·백아도를 시작으로 ▲25일 지도·출도·소야도 ▲26일 덕적도(2회)에서 설명회를 실시한다. 이어 29일에는 송병도·소이작도·대야도 ▲30일 자월도 ▲31일에는 무의도와 용유도에서 각각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일웅 시 에너지산업팀장은 “설명회에서 해상풍력의 필요성과 상생방안 등에 대해 주민·어업인들의 여러 의견을 듣고 공존·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인천 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는 23일 미추홀구보건소 의료진들에게 응원키트 50개를 전달했다. <미추홀구 제공>

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 미추홀구보건소 의료진에 응원키트 전달

서부발전 지정기탁금으로 마련

인천 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는 23일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예방에 애쓰고 있는 미추홀구보건소 의료진들에게 응원키트 50개를 전달했다.

응원키트는 (사)인천시자원봉사센터 주관 하에 한국서부발전의 지정기탁금으로 의료진에게 필요한 생필품과 간식 등을 마련해 응원메시지와 함께 김인수 보건소장에게 전달했다.

장은 “코로나19 최전선에서 1년이 넘게 애쓰고 있는 의료진과 보건소 직원들에게 응원과 감사의 마음을 담았다”며 “하루 빨리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 /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계양e음’ 소비회복 윤희유 역할 톡톡

발행 1주년을 맞은 인천 계양구 지역화폐 계양e음은 ▲캐시백 제공 ▲카드 수수료 지원 ▲혜택플러스 가맹점 확대 사업 등을 추진해 코로나19 과파로 침체된 지역 소비 회복에 윤희유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양e음은 1인당 50만 원까지 10% 캐시백을 제공해 지역주민의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에 기여하고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부담도 완화했다. 23일 구에 따르면 지난해 계양e음 카드 매출이 발생한 관내 7000여 점포의 계양e음 카드 수수료 2억8000여만 원을 지원했으며, 별도의 신청 없이 계양e음과 연계된 카드사를 통해 카드 수수료를 지급해 사업주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에 따라 구는 올해 혜택플러스 가맹점

구, 매출 발생 점포 7천여곳에 카드수수료 2억8천여만원 지원
누적회원 5만8천·결제액 1천억 기록

모집에 더욱 집중하고 특화 카드 발행을 통해 계양e음 사용자를 늘릴 계획이다. 혜택플러스가맹점에서 계양e음 카드를 결제한 지역주민은 기존 10% 캐시백 이외에 최대 12% 할인이 추가돼 총 22%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혜택플러스를 가맹한 사업주에게는 이음카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QR키트를 무상 제공하고 연계된 카드사를 통해 카드 수수료를 지급해 사업주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에 따라 구는 올해 혜택플러스 가맹점

가한 특화 카드를 연거 발행한다. 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생증에 계양e음 카드 기능을 추가한 특화 카드 발행을 위해 최근 관내 6개 고등학교와 협약을 맺었다.

구는 앞으로도 지역 상권과 특화 카드 혜택 연계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 시킬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양e음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 시키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높이는 선순환 경제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계양e음 카드는 2020년 3월16일 첫 발행 이후 누적 회원 5만8000명, 결제 금액 1000억 원을 기록했다. 인천 / 명창수기자 <mchs@jeonmae.co.kr>

최찬용 중구의회 의장 “피부에 와 닿는 지원정책 수립·시행 추진”

코로나19로 위기 겪는 취약계층 지원 최선 강조
국립공공병원 설치·공형철도 환승할인 등 역점

최찬용(사진) 인천 중구의회 의장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해 있는 구민들의 경제적 위기와 정신건강을 잘 돌보는 것이 급선무”라며 “지역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고용불안이 심화돼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전했다.

이에 “취약한 작업여건에 처해 있는 플랫폼노동자,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일용근로자, 대출조차 받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 등 생계압박에 놓인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공형과 환관1에 있는 중구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한 점이 너무 안타깝다면서, 앞으로 다시 지정될 수 있도록 중구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중구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전체가 아닌 일부가 해제된 것이 아쉽다며, 중구 모든 지역이 해제돼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구민들이 타격을 받지 않도록 더욱 큰 복속



리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최 의장은 “실제로 예산의 조기집행 및 적극집행, 소상공인들을 위한 용자지원 확대, 각종 행사 및 공연 중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대책 마련 등 피부에 와 닿는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인천국제공항 주변 MRO 단지 조성과 GTX-D 노선 유치 등 굵직한 현안들이 화두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 관문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의 배후도시인 중구는 국가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이 마땅히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인천 /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인천 부평구 청소년지원센터 꿈 드림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통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기준지가 부평구인 만 9~24세 학교 밖 청소년이며, 반기 기준으로 부평구 꿈 드림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4회 이상 참여하여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나이별로 차등 지급한다. 만 9~12세는 5만 원, 만 13~18세는 7만 원, 만 19~24세는 10만 원이다. 지원금은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청소년증이나 본인 명의 캐시비 카드로 지급되며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 신청 가능하다.

인천 / 명창수기자 <mchs@jeonmae.co.kr>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지원 신청 접수

인천 서구가 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지원 신청을 25일부터 받는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지원은 구와 시중 9개 은행과 용자협약을 체결하고, 용자 규모 100억 원 범위 내 기업과 협약 은행 간에 맺은 대출금리 중 연리 1.5~2.0%를 구에서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기업당 용자한도액은 최소 1000만 원에서 최고 2억 원으로 신용도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용자 기간은 2~3년을 적용한다.

자세한 사항은 기업지원일자리과 ☎ 032-560-4441로 문의하거나, 소문1번가(www.seo.incheon.kr) 홈페이지의 ‘새 소식’ 또는 ‘기업지원일자리과 부서 자료실’을 참조하면 된다.

인천 / 명창수기자 <mchs@jeonmae.co.kr>

원예기능사 자격증 취득반 개강·교육

인천 용진군은 최근 농업기술센터에서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원예기능사 자격증 취득반 개강하고 교육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원예기능사 자격증 취득반 교육은 과학적이고 경제성 있는 채소와 과수, 화훼와 시설원예 작물 재배를 위한 제반 지식과 기능을 갖춘 기능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이다.

국가기술자격증 시험 일정에 맞춰 추진하는 이번 교육은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총 7회 28시간의 필기 시험 교육과 실기시험 교육으로 나뉘며 채소·과수·화훼의 생리 및 재배환경, 병해충방제, 시설원예 등 시험을 대비한 체계적인 이론과 실기 교육 및 현장실습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인천 / 명창수기자 <mchs@jeonmae.co.kr>

시니어 컨설턴트 활용 인생 이모작 상담 서비스

인천 연수구 인생 이모작 지원 센터가 내달부터 시니어 컨설턴트를 활용한 50+세대(50세 이상 65세 미만 중장년층)를 위한 인생 이모작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니어 컨설턴트는 일·재무·사회공헌·사회적 관계·여가·건강·가정이라는 인생 이모작 키워드를 바탕으로 생애 영역별 상담을 진행하고 심층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분야별 전문기관에 연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상담은 센터 운영시간인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 ☎ 070-4116-9831~3 또는 방문(벚꽃로 106, 304호)을 통해 가능하다.

인천 / 명창수기자 <mchs@jeonmae.co.kr>

‘인천항 2050 탄소중립’ 실현 박차

인천항만공사(IPA)는 ‘인천항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향 수립과 종합계획 수립 전까지의 로드맵을 갖추기 위해 ‘인천항 탄소중립 실현 방향 수립’ 연구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IPA에 따르면 이번 연구를 통해 ‘인천항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항만 분야 탄소중립 최신 국제 동향 수집, 인천항 탄소중립 현황 조사 등 청사진을 마련하고 앞으로 종합계획과 장기추진전략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IPA는 인천항 탄소중립 로드맵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하고 ‘인천항 2050 탄소중립’의 종합계획과 장기추진전략 등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인천 / 명창수기자 <mchs@jeonmae.co.kr>



도성훈 인천교육감, 스쿨존 교통사고 현장방문

도성훈 인천교육감이 최근 스쿨존 교통사고가 발생한 인천 A초등학교 현장을 22일 찾았다.

도 교육감은 “교통사고로 학생 한 명이 고귀한 목숨을 잃어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 없고 깊은 애도를 전한다”고 말했다. 특히 “인전사,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 협조,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학생 등하굣길의 점검을 통해 스쿨존 교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인천 /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군포시 주민참여예산제 ‘시민 편의’ 최우선

대중교통 증가시켜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

충남 예산군은 전남 관내 버스·택시·장애 인클렉스 등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방역물품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방역물품 전달은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된 것이며 방역마스크 2만배와 차량용 분사형 소독제 700개가 지급됐다.

앞서 군은 설 이전인 지난달 10일에도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1만5000매를 전달한 바 있다.

군은 이와외에 안전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운수업체의 방역관리 활동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는 등 군민 불안감을 덜어주고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예산/ 이훈택기자 <chtle@jeonmae.co.kr>

예산반영 불가 제안사업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재검토하도록 권한 부여

경기 군포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민 편의를 위주로 달라진다.

23일 시는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권한 강화와 운영의 실질화 등을 골자로 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을 확정 공고했다고 밝혔다.

또 시민 시정 참여 확대를 위해 제안서 작성양식의 간소화, 접수 방식의 다양화,

민제안사업을 민과 관의 속의 과정을 거쳐 차기 연도 상반기 안에 사업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

이들러 시민 의견수렴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신하 각 분과위원회에 사업제안자가 참여하도록 했으며 매년 말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결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반영한 차기 연도 사업계획을 주민참여예산협의회에서 심의, 확정하기로 했다.

또 시민 시정 참여 확대를 위해 제안서 작성양식의 간소화, 접수 방식의 다양화,

제안서 작성을 위한 사전 컨설팅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검토방식도 바뀐다. 올해부터는 수용, 수용 곤란, 기증, 장기 검토 과제로 세분화하고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한다.

기존의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시 일반회계 1% 이내로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해 주민참여의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례개정에 착수한다.

한대의 시정은 “시 예산은 시민들에게서 나온다. 시민들의 합리적인 요구를 예산편

성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다”며 “변화된 제도가 잘 운영되기 위해 적극적인 시정과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안을 상정해 결정하고 예산반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재검토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주민참여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안을 최종 확정해 시 의회에 제출한다.

시는 오는 5월 31일까지 주민참여예산제안사업을 공모한다.

자격을 시 거주자나 시 소재 기관 근무자, 시에 영업소의 본점(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다.

신청은 시 자체분과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 또는 네이버 폼으로 하면 된다.

한편 신청하 시 자치분과과장은 “예산에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주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군포/ 이재주기자 <goodnews@jeonmae.co.kr>

청년창업아카데미 예비창업자 20팀 모집

충남 보령시는 ‘올해 청년창업아카데미’에 참여할 지역 내 청년 예비창업자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청년창업아카데미는 청년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 진입, 창업 실무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 경영·마케팅 분야별 상담 및 창업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현재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39세 이하 예비창업자이며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이메일로 보내거나 보령공공복지플라자센터 일자리 지원센터 2층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창업아카데미 대상자는 1차 서류 심사 진행 후 2차 대면심사를 통해 내달 중 최종 20개 팀을 선정해 개별 통보하기로 했다.

보령/ 이연경기자 <leegy@jeonmae.co.kr>

속초해수욕장 시설을 확충·환경정비 추진

강원 속초시가 사계절 명품 해수욕장인 속초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 편의 제공을 위한 시설 확충·정비와 환경정비 사업에 나선다.

23일 시에 따르면 이용객 편의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 사업으로 세족샤워기(발 샤워기) 2개소(속초해수욕장 남문, 외동해수욕장) 신설 및 실내샤워장 운수전용코인샤워기 설치(2대) 및 야외 코인샤워장 8대 추가 신설한다.

코로나19 시대 타인과의 접촉을 피하려는 문화의 확산으로 지난해 많은 이용객의 호응이 높았던 야외 코인샤워기 등 속초해변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신설하고 해수욕장 운영기간 동안 방수판 제거하였던 실내 샤워장은 운수를 제공해 샤워장 이용에 많은 불편을 느꼈던 노약자, 여성 및 어린이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속초/ 윤택훈기자 <youth@jeonmae.co.kr>

교원 자율연수 확대 운영

국립형성숲체원은 교원 자율연수를 대폭 확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코로나19가 교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82개 중·고등학교 222명 교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우울한 상태’라고 응답한 비율이 40.4%에 이르렀다.

이에 국립형성숲체원에서는 교원 대상 심리지원을 위한 교원 자율연수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신뢰의 중요성 등 학생들의 환경 의식 제고에 기여하고자 이번 연수를 마련했다.

국립형성숲체원은 지난 2017년부터 4년 연속 교원 대상 직무연수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교원 자율연수에서는 산림 체험 프로그램과 더불어 산림치유를 접목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교원의 심신 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형성/ 안종률기자 <yahn@jeonmae.co.kr>

원예·특작물 보조사업 추진

강원 고성군은 농촌 인력 절감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한 경영체 제고를 위해 4개 분야에 12억2200만 원을 투입하는 원예·특작물 보조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지원 사업은 ▲농산물 다목적 건조기 지원 21농가 2대 5000만원 ▲비닐하우스 현대화 38농가 2억4700만원 ▲산지유동저장시설(저온저장고) 81동 6억2500만원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68농가 3억 원 등이다.

군은 이월부터 대상 농가에 사업비를 지원, 농산물 상품성 향상과 경영안정에 기여하는 동시에 농산물의 체계적 관리와 유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성/ 박승호기자 <shpark@jeonmae.co.kr>

정보화마을 지원하 공모사업 선정

강원 삼척시는 도에서 주관한 2021년도 정보화마을 지원하 공모사업에 원덕읍 산양정보화마을이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에 총 10개 시·군이 참여해 19개 신청 마을 중 8개 마을이 선정된 가운데 삼척 산양정보화마을이 ‘병풍배우 어영장 활성화 사업’으로 선정돼 총사업비 2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게 됐다.

산양마을은 마을 공동체에서 기 운영 중인 어영장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베이비 스마트 계약을 도입하여 지원하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상수기 기간 운영 중 발생한 애로사항과 캠퍼스마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설 개선 목적으로 공모사업에 응모해 선정됐다.

삼척/ 김홍식기자 <kimhs@jeonmae.co.kr>

충남교육청, 학교 불법촬영 불시 점검한다

불법촬영예방 점검단 실습교육 실시

충남교육청은 전남 과학교육원에서 불법촬영예방 점검단으로 위촉된 일반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불법촬영예방 점검단’

실습교육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실습교육은 불법카메라 탐지 전문가를 초청해 불법촬영카메라의 유형과 사례 등을 학습하고 각 교육지원청에 구비된 탐지기의 운용 방법을 익히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불법촬영예방 점검단은 1년에 2회 정도 학교를 불시에 방문해 학교를 점검하고 불법카메라 탐지 활동을 한다.

이정순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생교직원 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예방 활동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용인시, 차세대 교통 체계 토대 만든다

지능형교통체계 계획 수립 용역착수

선진 교통 인프라 구축 다양한 정책 모색

경기 용인시는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시 교통 체계의 기본 방향과 목표 등을 제시하는 것으로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이번 용역에선 2021~2030년 관내 교통

체계를 포괄하는 기본계획을 오는 12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또 시민의 안전·편의 등을 다양하게 고려해 교통 현행 분석하고 교통 체계 개선점을 도출할 방침이다.

이외에 스마트 교통환경에 대비한 차세대 교통 체계 토대를 마련한다. 차량과 사물 간 통신기술을 이용, 응급 차량에 대한 우선 신호 등이 가능한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C-ITS) 도입도 연구한다.

또한 시는 용인의 특성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한 후에는 도 교통평가과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기본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시대 변화에 발맞춘 기반을 마련하겠다”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진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인/ 유원수기자 <yous@jeonmae.co.kr>

원주 간헐관광지 종합개발 구간 명칭 ‘소금산 스카이밸리’ 확정

11월 준공 목표...연말 그랜드 오픈 예정

강원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와 연계한 명품관광지 조성을 추진 중인 간헐관광지 종합개발사업의 시설물 설치 구간 명칭이 ‘소금산 스카이밸리’로 확정됐다.

원주시는 케이브카-원주 소금산 출렁다리-하늘비림길-하늘정원-데크신채로-잔도-잔관대-유리다리-에스컬레이터로 연결되는 주간여휴 코스를 상징할 명칭을 찾기 위해 올해 초 전국 공모를 실시한 결과 총 52개 가운데 소금산 스카이밸리를 새로운 이름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소금산 스카이밸리는 오는 11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에 박차를 가해 빠른 연말 그랜드 오픈할 예정이다.

준공에 앞서 오는 6월에는 간헐관광지 내 야간경관조명, 음약분수, 미디어파사드가 어우러지는 야간여행 코스인 ‘원주 나오라(Night Of Light) 쇼’가 개장을 앞두고 있다.

원주/ 안종률기자 <yahn@jeonmae.co.kr>

안양시, IoT 기반 미세먼지 관리시스템 구축

경기 안양시가 미세먼지 관리에 IoT기술을 적용,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적극 나선다. 이에 따르면 IoT 기반의 미세먼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도로청소와 연계시킨다고 23일 밝혔다.

이에따라 사업비 8억 원을 투입한 IoT 기반 미세먼지 관리시스템은 3단계에 걸쳐 흐르다가 구성된다.

미세먼지 농도가 관내 운행 중인 청소차량의 단말기에 표출되고 이를 통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으로 살수차량이 출동해 도로 물청소에 나서게 된다. 살수차량 운행 전후의 미세먼지 농도개선 상태 또한 데이터로 관리된다. 미세먼지 측정기가 설치된 버스정류장 4개소는 빅

데이터 분석결과 교통량, 유동인구 등이 많은 지역이다. 이 측정기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습도, 온도, 자외선지수 등 5개 항목 측정이 가능하다.

안양/ 배진석기자 <baeis@jeonmae.co.kr>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312개 설치

경기 오산시가 보행자 및 차량용 도로명판 312개를 신규 설치, 길 찾기가 더욱 쉬워졌다.

23일 시에 따르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인 차량용 도로명판 36개와 보행자용 276개를 신규 설치하는 등 보행자 중심의 도로환경을 조성했다.

이전에 설치한 차량용과 보행자용 도로명판은 통행량이 많은 이면도로와 기존에 미설치된 외곽지역 위주로 설치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은 차량용과 달리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보행자의 눈높이에 맞춰 비교적 낮은 높이에 설치, 보행자들이 걸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 역할을 한다.

오산/ 최승필기자 <choi-sp@jeonmae.co.kr>

팬택시자원봉사센터·리폼스포츠·지역아동센터팬택시협의회

자원봉사 활성화·지역아동 체육활동지원 ‘맛손’

경기 팬택시자원봉사센터는 최근 ㈜리폼스포츠, 지역아동센터팬택시협의회와 자원봉사 활성화 및 지역아동 체육활동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따라 ㈜리폼스포츠는 팬택시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지역아동센터팬택시협의회 추천아동 12명에게 1년간 안성 스타필드 차차풋살파크에서 ‘WM ACADEMY 축구교실’에 참여시키는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협약으로 아동들은 기초체력 훈련 및 체계적인 축구 기본교육을 받게 되며 ㈜리폼스포츠의 후원과 조민구 감독 및 코치진의 재능기부를 통해 수입료와 유니폼, 축구

화를 무상으로 지원받게 된다. 백영재 대표이사는 “이번 스포츠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감과 성취감, 그리고 긍정적인 정서와 사고를 키워 좋은 사회를 만들 인재를 성장시킬 바란다”며 소감을 전했다.

방미옥 센터장은 “아이들의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축구교실을 기획해 준 ㈜리폼스포츠 백영재 대표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축구교실은 스포츠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많은 기업들이 스포츠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팬택/ 김원복기자 <kimwb@jeonmae.co.kr>



패강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른 승리 선언식이 23일 오후 2시 강원 정선 사북읍 뿌리공원에서 열렸다. <공동추진위원회 제공>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

제26주년 3·3 주민 대투쟁 기념식 눈길

패강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른 승리 선언식이 23일 오후 2시 강원 정선 사북읍 뿌리공원에서 열렸다.

정선군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는 이날 ‘패강지역 살리기 추계 화과 투쟁 승리 선언식 및 28주년 3·3투쟁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최순준 정선군수 등 패강지역 4개 시·군 시장·군수, 7개 시·군 의장, 패특별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힘쓴 국회의원과 지역주민 등이 참석했다.

정선/ 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

철원 옥단리-잠곡리 마을간 상생협력 MOU 체결

강원 철원군 국경없는 옥단리 양지마을은 최근 잠곡리 해누리마을과 상생에 따른 MOU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국경없는 양지마을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마을 발전을 위해 잠곡리 해누리마을과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옥단리 양지마을은 외국인 농업인력 지원 공간 신축 및 생활문화 공간 ‘양지’ 신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오랜시간 방치됐던 시외버스터미널 건물을 철거하고 공원 조성을 계획하는 등 도시재생뉴딜사업 1차

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잠곡리 마을은 마을 내 농산물 판매장을 준공했고 먹거리 체질개선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마을주민 대다수가 영농조합에 가입하는 등 기업형 새농촌 2단계로 추진하고 있다.

신우용 잠곡2리 추진위원장은 “해누리마을에서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마을 주민 간 일지리를 제공하고 소득도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철원/ 지명복기자 <jmb123@jeonmae.co.kr>

양양군, 코로나19 선제적 예방 조치 강화

5일장 휴장· 실내 공공체육시설 휴관

강원 양양군이 코로나19 선제적 예방 조치 강화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이에따라 24일부터 양양 5일장을 휴장하고 시장상가 내 방역을 강화한다. 관내 실내 공공체육시설도 휴관에 들어갔다.

문화복지회관 수영장, 체육단련실, 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센터, 군 실내체육관, 읍면 게이트볼장은 지난 20일부터 휴관중이다. 다만 실내 체육시설은 개방 운영하고 있다. 다만 실내 체육시설은 개방 운영하고 있다.

양양/ 박명기기자 <parksh-mk@jeonmae.co.kr>

또 관내 22개 사업장, 124명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도 진행 중이다.

이외에 군청 방문 민원인에 대한 출입 통제 역시 강화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층에서 방문민원인을 응대하고 방문목적도 꼼꼼히 기록 중이다.

또한 각 부서에서도 급한 경우가 아니면 업체 관계자의 방문을 다음으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방문자와 마스크를 벗지 않고 대면 상담을 하기 위해 일명 ‘차(茶)응대 STOP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국립한국섬진흥원 건립 최적지는 남해”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 공개 모집

전남 고흥군은 내달 9일까지 ‘고흥군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 30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여성정책에 관심과 자신감 있는 아이디어가 많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열정이 있는 주민이라면 주민참여단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군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주민참여단 지원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신청 여성청소년과를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여성청소년과 여성보육팀(061-830-5322)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흥/ 구자형기자 <kjh@jeonmae.co.kr>

郡 유치 계획 수립... SNS 등 통한 전 주민·향우 염원 집결 지정학적 조건·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뛰어난 입지 여건

“국립 한국 섬 진흥원 건립 최적지는 남해” 전남 남해군이 국립 한국 섬 진흥원 유치를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

군은 전 주민과 향우들의 염원을 집결하기 위해 공모 결과가 발표되는 내달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 등을 활용한 인턴트 홍보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홍보하

는 일석이조 효과를 노리기 위함이다.

특히 남해군이 왜 한국 섬 진흥원의 최적 입지인지를 적극 알리면서 공감대를 형성해 가겠다는 방침이다.

군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 지자체로 청정한 자연 환경을 보존하고 있어 그 어느 곳보다 한국 섬 진흥원의 설립 취지와 부합한다는 평가다.

특히 서해안과 동해안의 중심인 남해안, 그 중에서도 중심지가 남해군이라는 점도 큰 매력이다.

지정학적 조건이나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군의 입지 여건이 뛰어날 뿐 아니라 살기좋은 섬 만들기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의 역량과 한국 섬 진흥원의 전문성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한국섬진흥원 유치와 동시에 살기 좋은 섬 만들기를 위한 표준 모델을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군은 살기좋은 섬 만들기 표준 모델로 ▲창년이 일하고 싶은 분야는 섬 ▲주민의 일상이 섬의 역사가 되는 살기좋은 섬 ▲생태 자연을 활용한 예술의 섬 등 세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정중남 군수는 “청정 자연을 보존하고 있는 보물섬 남해군은 그 자체로 섬 진흥원의 설립 요건에 부합할 뿐 아니라 국토균형발전 가치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는 입지”라며 “대한민국 전역을 관할할 수 있는 동서남해안의 중심인 남해군에서 대한민국 섬 발전 정책을 일궈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남해/ 박종봉기자 <bjb@jeonmae.co.kr>

저소득층 방문간호 의료·간병비 지원사업 추진

경남 하동군은 방문간호관리사업 대상자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진료를 받을 수 없는 건강취약계층에 의료비 또는 간병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올해 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건강취약계층 30명에게 각 20만원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하동여 주민등록을 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저소득계층을 우선 지원하며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보건소에 전화 문의 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의료비와 간병비 모두 연 1회 지원 가능하며 의료비 또는 간병비 중 어느 하나만 지원 가능하다.

하동/ 임홍섭기자 <imhs@jeonmae.co.kr>



경북 청도군은 지난 21일 이승을 군수, 김수태 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청도 소싸움미디어체험관’을 개관했다.

청도 소싸움미디어체험관 개관...내달까지 무료 개방

4D영상체험관 등 갖춰

경북 청도군은 23일 이승을 군수, 김수태 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청도 소싸움미디어체험관’을 지난 21일 개관했다고 밝혔다.

소싸움미디어체험관은 기존 소싸움테마파크를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리모델링해 개관했다.

영하고 5월부터 유료로 전환할 계획이다. 관람료는 성인 3000원, 청소년 2000원이다.

이승을 군수는 “소싸움미디어체험관으로 관광객들이 우리 생활 속에 함께 하는 ‘소’에 대해 친숙함을 느끼고 청도 소싸움의 매력을 알게 됐으면 좋겠다”며 “더불어 청도 소싸움경쟁, 와인터널, 군과크루지 등 인근 관광지도 함께 즐기는 관광객들이 증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도/ 변경호기자 <byeon-KH@jeonmae.co.kr>

진도아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전남 진도군이 지역화폐 불법유통과 부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팔을 걷었다.

군은 ‘진도아리랑상품권’의 불법유통과 부정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매출거래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수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명백한 부정유통 행위가 발견되면 ‘지역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맹점 등록취소·정지 등의 행정처분, 최고 2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나 환수 등의 제재 처분이 내려진다.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 내달 말까지

경북 청송군은 2021년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을 내달 말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무농약·유기인증 받은 농업인 등으로 최대 5ha까지 지원한다. 무농약 인증의 경우 3년간 매년 ha당 500~1200만원을 지원하며 또한 유기인증은 5년이 지난 후 유기지속 인증으로 변경돼 매년 ha당 350~700만원을 인증해 때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특히 친환경농업직불제는 공익직불제와 중복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인들의 소득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송/ 김태진기자 <tjikim@jeonmae.co.kr>

2021년 택시감차보상사업 추진

경남 의령군은 택시 공급과잉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해 2021년에 법인 택시 10대, 개인택시 2대 등 12대를 감차한다고 밝혔다.

보상금액은 지난해 의령군 택시감차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법인택시 2450만 원, 개인택시 5375만 원을 지급한다.

군은 공급과잉인 택시업체의 수입구조를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제4차 택시총량 조사 용역을 시행했고 용역결과 및 2020년 택시감차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택시 18대(21년 12대, 22년 1대, 24년 5대)를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자율 감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의령/ 최판규기자 <chpag@jeonmae.co.kr>



진주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비 유관기관 업무협약

경남 진주시는 지난 22일 경찰서, 소방서, 8862부대 1대대와 코로나19 백신 경계 및 안전한 저장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서 조규일 시장과 서성종 진주경찰서장, 김용수 진주소방서장, 조광재 8862부대 1대대장은 코로나19 백신의 분별 접종을 앞두고 백신 관리와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상호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시는 예방접종센터를 총괄 운영하는 8862부대 1대대는 백신 입출하 시 현장 경계와 핵심 시설에 대한 경계 및 백신 저장관리에 관한 임무를 수행한다. 진주경찰서는 시설 내외부에 대한 순찰과 차인활동 수행하고 진주소방서는 급급차 상시 대기, 집중진료 지원, 응급환자 긴급수송, 화재대피 시설물 안전관리에 24시간 협조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진주/ 박종봉기자 <bjb@jeonmae.co.kr>

순천시 ‘K-POP 슈퍼콘서트 전남’ 열린다

市 개최지 최종 선정...순천만국가정원 등문 잔디마당서 10월 말 개최

전남 순천시가 코로나19 종식 이후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2021 K-POP 슈퍼콘서트 in K-오리 잔디 잔마’의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

‘23일 시에 따르면 ‘K-POP 슈퍼콘서트’는 코로나19 집단면역이 형성되는 올 4분기 메가 이벤트를 개최, 전남엔 뉴한류 콘텐트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지난 2월 공모를 실시해 교통여건과 관광연계성, 편의시설, 방역체계 등 선정기준에 따라 시가 최종 선정됐으며 시는 생태관광 매력성과 교통 접근성 및 편의시설, 대규모 국제행사,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했던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워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K-POP콘서트는 오는 10월 말 순천만국가정원 등문 잔디마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저주파주사장치, 팔미조합운동장에 보조무대를 마련해 인원 분산을 유도한다.

국도비 포함 총사업비 10억원을 들여 K-POP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인 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관광공사, 전남관광재단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합집시 시 관광과장은 “전통과 생애, 정원이 어우러진 순천에서 열리는 K-POP콘서트가 2023순천만국제제원박람회 사전홍보와 전남 외래 관광객 유치 기반 확립을 위해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영암군, 기운찬 농정추진 농업경제 활성화 이끈다

전남 영암군은 ‘고품질 고소득의 생명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군의 신성장 4대 핵심발전 산업의 하나인 ‘종자산업 육성’과 ‘달마지 쌀 골드 명품화’ 사업, 우수 농·특산물 6차 산업화, 읍면별 특화작목 육성, 스마트팜 활성화를 통한 최첨단 농업육성, 무화과 산업특구 전략,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설치 지원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우수 농·특산물의 온라인 마케팅 강화를 추진 소득증대와 더불어 농업인 복지증진사업 확대를 통한 농업인이 행복한 한해

종자산업 육성·스마트팜 등 추진 780억 지원...6차 산업화도 총력

을 위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20억 4000만원, 고품질 유통차량을 생산하기 위한 유통차량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에 12억원을 투자해 농촌 등·복합산업 활성화를 기여 하기로 했다.

전통명품 군수는 “앞으로도 기운찬 농정을 추진해 농식품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힘써 농식품 산업의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권상용기자 <ksy@jeonmae.co.kr>

함안군, 올해 학교급식사업에 40억8600만원 투입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서 결정

경남 함안군은 품질이 우수한 학교급식 식자재 구입 등에 올해 총 40억 8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전남 조규호 부군수 주재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 학교급식지원비’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군에 따르면 올해 식품 구입예산으로 총 40억 8600만 원(군비 13억8600만 원)을 지

출한 학생 수에 따라 차등지원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군은 친환경 쌀 학교급식 지원에 위해 유치원, 초·중·고교에 5300만 원(군비 3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회의에서 위원장인 조 부군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학교급식지원사업 추진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성장기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안/ 김경호기자 <jd2009@jeonmae.co.kr>

경북도, 사회적기업 99곳 선정...일자리 469명 제공

내달부터 1년간 지원

경북도는 올해 ‘제1차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할 도내 사회적기업 99곳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경북도는 최근 일자리창출사업 심사위원회를 열고 99개 사회적기업에 469명을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예비 사회적기업과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비 사회적기업은 지정기간 3년 이내 최대 2년간, 인증 사회적기업은 5년 이내 최대 3년간 지원연차에 따라 사업비를 차등(예비 50~70%, 인증 30~60%) 지원받으며 취약계층을 고용하면 20%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년에 선정된 기업은 신규 32곳 75명, 상반기 약정이 종료되는 재심사 기업 67곳 394명 등 총 99개 기업으로 이들 기업은 해당 시군과 약정을 체결하고 내달 1일부터 1년간 지원을 받는다.

도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이 도내 사회적기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의 안정적 고용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북/ 신용대기자 <shinyd@jeonmae.co.kr>

울진군, 후계농업경영인 선발·지원사업 추진

자금·교육·컨설팅 등 종합적 지원

경북 울진군은 내달 23일까지 2021년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은 농업 발전에 이바지할 우수한 전문농업인을 발굴해 일정기간 자금·교육·컨설팅 등의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우수 농업인력을 육성하는 사업이며 농업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영농규모 확대와 경영개선 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2016년 이전까지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 중 5년 이상 현재 영농에 종사 중인 농업인으로 경영성과 교육실적 및 영농규모 등을 평가해 선발한다.

우수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되면 토지구입과 농업용 시설, 축사부지구입,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등에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연리 1%로 융자 지원된다.

울진/ 장성중기자 <csc988@jeonmae.co.kr>

의령군, 주민 눈높이 맞춤형 민원실로 리모델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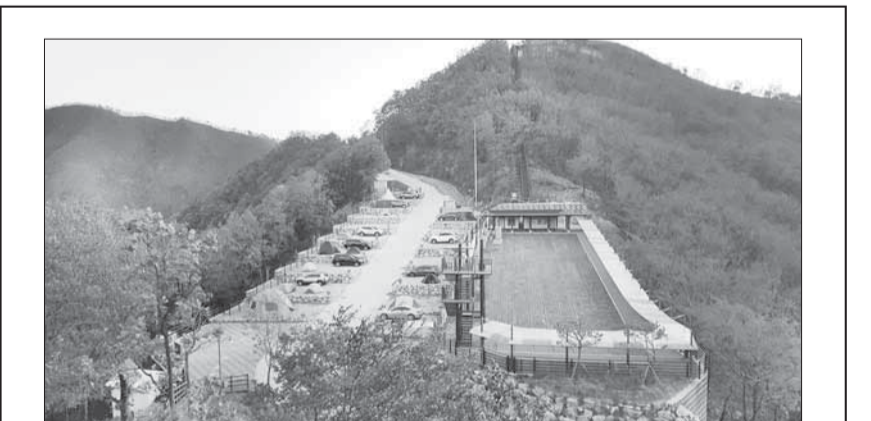
경남 의령군은 민원편의 중심의 소통기관으로 조성 및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해 23일 군청 민원실을 리모델링 했다고 밝혔다.

기존 획일화된 단일 색상의 민원장구 안 내관은 민원인이 행정업무를 구분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었으나, 이번에 업무 특성별로 색상을 구분해 안내판을 설치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장구를 찾아 민원업무를 볼 수 있도록 했다.

이부에도 민원실에 작은 도서관 및 수유실, 건강지킴이 코너, 주민 쉼터 등 공간을 재배치 확대해 민원인이 민원실을 방문할 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민원 안내 도우미 운영 및 장애인도 인입신부를 위한 전용 우대장구를 배치해 사회적 약자의 이용 편의를 세심하게 배려했다.

의령/ 최판규기자 <chpag@jeonmae.co.kr>



경북 문경시 문경단산숲속캠핑장이 동절기 긴 겨울을 깨고 23일 문을 열었다.

해발 856m 고지 문경단산숲속캠핑장 ‘문 활짝’

왕복 3.6km 전국 최장 단산노레일 등 즐길거리 풍성

경북 문경시 문경단산숲속캠핑장이 동절기 긴 겨울을 깨고 23일 문을 열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에 따르면 문경의 명소 단산노레일 상부에 위치한 단산숲속캠핑장은 해발 856m의 화트인 산에서 백두대간의 멋진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특별한 캠핑장이다.

1.236㎡ 부지에 오토캠핑이 가능한 사이트가 16편으로 구상돼 있으며 개수대, 공동화장실, 발빛전망대, 매점 등 각종 편의시설과 전기시설을 갖추고 있어 캠핑족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캠핑장 주변에는 왕복 3.6km 전국 최장거리의 노레일과 하늘을 나는 매리글라이딩, 레일썰매장, 모험 시설, 전망대 등 다양한 즐길 거리와 휴식 공간이 조성돼 있다.

특히, 단산 정상까지 이어지는 1.9km의 올레길은 전 구간 나무 데크길로 만든 무장애길로 누구나 편안하게 산 정상에 정취를 맞출 수 있다.

금융경 이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캠핑장 재개장으로 자연과 함께 파로를 풀 수 있는 힐링 여행이 되길 바라며 안전한 캠핑을 위해 이용객들 모두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캠핑장 이용관련 정보는 문경관광진흥공단 홈페이지 www.mgtp.or.kr 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문경/ 안범관기자 <ahn-bk@jeonmae.co.kr>



강원 태백·삼척·영월·정선 등 전국 폐광지역 7개 시·군의회 의장은 23일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폐광지역 현안사항 공동대응 및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가운데가 전흥표 초대 협의회장. <정선군의회 제공>

폐광지역 7개 시·군 힘 모은다

의정협의회 발족·상생발전 협약 전흥표 회장 “유기적 공조 구축”

폐광지역 7개 시·군(태백·삼척·영월·정선·보령·화순·문경)의회가 폐광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한데 힘을 모은다.
23일 강원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7개 폐광지역 현안사항 공동대응 및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전흥표 의장을 비롯해 태

백·삼척·영월·보령·화순·문경 등 7개 시·군의회 의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지역간의 상생과 성장 촉진을 위한 현안 해결에 산재적으로 공동 대응하기로 의기투합했다.
협약회는 이날 협의회 운영규약을 확정하고 향후 주요 현안 발생시 심도있는 논의와 발빠른 대응을 위해 지역별 대표의원 2명씩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논의된 사항들은 7개 시·군 의회와 협력하기로 했다.
7개 시군 의정협의회는 이에 앞서 지난달 19일 정선군의회에서 폐북법 시효조항 철폐

추구 공동성명 발표를 위해 모인 자리에서 협의 의의 구성안에 대한 사전조율을 마쳤다.
한편 이날 전국 폐광지역 시·군의회 의정협의회(가칭)를 정식 발족하고 전흥표 정선군의회 의장이 초대 협의회장으로 추대됐다.
전 초대회장은 “7개 시·군 의정협의 추대 속에 의정협의회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도 유기적 공조 체계 구축과 함께 다각적인 상생발전을 모색해 폐광지역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선/ 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

충남도의회 ‘온택트 국제교류’ 눈길

광역시회 첫 실시

장우성 인민대표대회와 상호결연 협약

충남도의회가 광역의회 중 처음으로 ‘온택트’ 국제교류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23일 도의회는 도청 대회의실에서 장우성 인민대표대회와 화상회의를 갖고 우호교류 협력 체결 10주년 기념 상호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와 인민대표회의는 현재보다 진일보한 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 대상은 환경, 과학기술 인재 교류, 청소년 교류 등이다. 오는 5월 장우성에서 열릴 예정인 동아시아 기업인 태호포럼 등 국제행사 개최 시 온라인 참여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교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향후 호주 남호주주의회까지 참여하는 3차 교류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도의회가 상호결연 협약을 맺는

것은 최소 사례”라며 “협약 체결을 통해 과학 인재 및 청소년 교류, 신재생 에너지 활용 등 협력 분야를 점진적으로 넓혀나갈 것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6개국 14개 의회·자치단체와 우호교류 협력을 맺고 있다.
장우성과는 지난 2011년 우호교류 협력을 체결하고 총 7차례 대면 교류와 각종 학교 간 친선 축구 경기 등 활발한 교류를 펼쳐 왔다.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홍성군, 드론 활용 스마트행정 이끈다

실시간 영상 중계용 드론 3대 정시영상 촬영용 드론 2대 도입

충남 홍성군이 드론을 활용하며 스마트 행정을 펼치고 있다.
23일 군에 따르면 무인항공촬영시스템 및 실시간 드론영상 중계시스템을 지난해 구축한데 이어 정시영상 촬영용 드론 2대와 실시간 영상 중계용 드론 3대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 무인항공촬영시스템을 통해 대단지 사업 지구관리, 정책결정자료 등에 2cm급 정시영상, 4K급 항공영상을 촬영·제작해 디지털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적재조사사업에 드론을 활용, 기존 포털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저해상도 항공사진의 한계를 극복했다.
드론의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활용해 정

확한 토지 이용 현황을 확인해 토지소유자에게 정확한 토지정보를 전달하며 경계 결정 조정과 주민설명회에 적극 활용해 사업기간 단축은 물론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분쟁해결을 돕고 있다.
또 실종자 수색·구조 등 주요 재난·재해 발생 시 실시간 드론영상 중계시스템을 활용한 현장정보를 수집하고 군이 보유한 드론 및 조종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홍성경찰서, 1789부대 4대대와 업무협약을 맺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상호협력 위기대응체제를 구축했다.
김재철 민원지적과장은 “드론을 활용해 부서 간 업무협업을 활성화하고 예산 절감 및 신속하고 정확한 정책 결정 자료를 제공해 군정업무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 최성교기자 <sgchoi@jeonmae.co.kr>

속초시간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1년 다문화특화 공모사업에 선정

강원 속초시간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강원랜드 복지재단에서 주관하는 ‘2021년 다문화특화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시는 이번 선정으로 사업비 1300여만 원을 지원받게 됐으며 사업비는 ‘아동요리지도사 1급 양성과정’ 및 ‘세계전통놀이 지도사 자격증반’ 운영에 쓰일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시는 이 사업으로 결혼이민자의 취업역량과 자존감을 향상해 보다 전문적인 취업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김상희 시 가족지원과장은 “결혼이민자가 우리사회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적응하고 삶의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해 취업지원은 필수이며 이번 교육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과 함께 속초지역에 꼭 필요한 인력이 돼 지역사회 리더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속초/ 윤택훈기자 <youth@jeonmae.co.kr>

강원교육청, 내달 21일까지 찾아가는 행복교육지구 성장지원

강원교육청은 22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찾아가는 행복교육지구 성장지원을 추진한다.
‘찾아가는 행복교육지구 성장지원’은 도내 18개 시·군 행복교육지구별 현황을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교육 협력체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행복교육지구별 협력체제 구축, 혁신교육 문화 정착 지원, 마을과 함께하는 돌봄과 배움, 맞춤형 성장 지원 등 성장지원 희망 분야를 신청 받아 도내 행복교육지구를 직접 찾아가 맞춤형 지원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김흥식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아이들의 온전한 성장을 위해서 학교와 마을,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행복교육지구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맞춤형 성장지원으로 지역교육 협력체제를 다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춘천/ 이승희기자 <leesm@jeonmae.co.kr>

킨텍스 “마이스 산업·업계 회생 위한 정부 대책 시급”

국제회의 80% 취소로 5조원 손실

킨텍스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관련 업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어 마이스 산업 및 업계의 회생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23일 밝혔다.
국내에서 개최되는 전시회는 지난해 2~5월, 8~10월, 12월~올해 2월까지 총 3번에 걸쳐서 8개월간 중지됐고 국제회의도 약 80%가 취소됐다.
이에 국내 마이스 업계는 약 5조 원의 매출 손실을 기록했으며 일자리도 감소해 산업 생태계까지 위협받는 실정이다.
이번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개편방안으로 관련 업계의 어려움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국전시산업진흥회, 한국MICE협회, 한국전시주최자협회 등 MICE 관련 협회, 단체들은 고사 직전의 상태인 업계의 어려움

을 호소하며 정부에 건의문을 제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적극 요청하고 있다.
최근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된 ‘코리아빌드’에서도 350개사 1500부스 규모로 4일간 총 5만 7022명이 방문했으나 아무런 문제없이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돼 현실적인 사회적거리두기 지침 마련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킨텍스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킨텍스 전시장 운영이 중단되다시피 해 지난 2월까지 단 한 건의 전시회도 개최하지 못했으나 이번에 개최된 ‘코리아빌드’를 통해 대형 전시회에 대한 사람들의 탈각된 분위기와 함께 마이스 산업이 재기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고양/ 임철일기자 <imci@jeonmae.co.kr>

평택시, 2022 세계 장애인 역도 대회 개최지로 선정

아시아-오세아니아 오픈 선수권대회

‘평택 2022 세계 장애인 역도 아시아-오세아니아 오픈 선수권대회’가 내년 6월 14일부터 21일까지 경기 평택시 안중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이 대회는 2022 항저우아시안게임 및 2024 프랑스로열림픽 참가 출전권을 확보해야 하는 대회로 세계 400명의 선수단 및 임원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지난 2019년 세계장애인역도연맹에서 대회 가능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해 나온 현장실사 결과, 시는 인천공항에서 1시간 거리에 위치하고 오는 5월 준공예정인 안중체육관을 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포승지역에 있는 호텔

등을 속소로 사용가능한 점을 꼽아 개최지로 판단돼 개최지로 최종 결정됐다.
이에 따라 부시장을 단장으로 대회지원 T/F팀을 구성해 낙후된 사부지역의 도심 및 도로 등을 정비하고 모든 시민이 도시 이미지 개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관련단체 등을 통한 범시민 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정상선 시장은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 하반기부터 대회장 주변과 도로변 등 사평택 지역의 깨끗한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평택/ 김원복기자 <kimwb@jeonmae.co.kr>

경기 광주시, 역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구성

중앙공원 내 2024년 개관 목표

경기 광주시가 오는 2024년 개관을 목표로 역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중에 있다.
23일 시에 따르면 역동 산1-1번지 중앙공원 내에 역사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한 행정 절차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설립 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동현 시장은 “광주박물관 건립은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동시에 다채로운 전시 및 프로그램 운영에 역사와 문화를 시민에게 알리도록 할 것이며 활력 넘치는 문화예술도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 도윤석기자 <ngoa21@jeonmae.co.kr>

금산군, 정보 격차 해소 위한 주민정보화교육 실시

스마트폰 기초·문서편집 등 4개 과정

충남 금산군은 연말까지 주민정보화교육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컴퓨터 기초, 스마트폰 기초, 스마트폰 앱 활용, 문서편집 등 4개 과정에 대해 금산다목적 청소년의정정보화교육장에서 무료로 실시된다.
과정별로 2개월간 1일 2시간씩 진행되며 교

육 시작 전담 튜터 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교육장 소독, 투명 칸막이 설치, 교육생 방역수칙 등 조치를 준수하며 추진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세대와 소통을 위해 실시되는 정보화 교육에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금산/ 황선동기자 <m04570@jeonmae.co.kr>

학생 상담지원봉사자 협의회·연수

충남 보령교육지원청은 전담 상담기 학생 상담지원봉사자 협의회 및 연수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학생 상담지원봉사자는 학생상담 지원봉사를 통해 대한 기본소양과 지질을 갖추고 청소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서 도와주는 전문봉사자이며 보령은 현재 총 14명의 봉사자가 활동하고 있다.
이날 열린 협의회에서는 학생 상담지원봉사자 운영 계획 안내 및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보령/ 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학교 주변 불법옥외광고물 일제 정비

강원 철원군은 새학기를 맞아 최근 학교 주변에 부착된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일제정비는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요 도로 주변을 대상으로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을 중점적으로 철거했다.
이에 따라 군은 각 읍·면 광고물 담당자와 한국옥외광고협회 철원군지부 소속 불법광고물 정비반이 3개조로 나눠 관내 지역에 부착된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는 민·관 합동정비를 대대적으로 진행했다.
철원/ 지명복기자 <jmb123@jeonmae.co.kr>

저소득 장애인 주거 편의시설 지원

강원 고성군은 농어촌지역 저소득 장애인 주거 편의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3일 군에 따르면 가구 당 380만 원 씩 지원 계획인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은 출입문 설치, 바닥공사, 비상연락장치, 현관, 부엌, 욕실 등 주택 내·외부 시설 개조 등이다.
지원대상은 등록 장애인 중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이하인 가구이며 지원 순위는 자재, 노병년, 시각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순이다.
고성/ 박승호기자 <shpark@jeonmae.co.kr>

잡곡밥도 햇반답게 갓지어 맛있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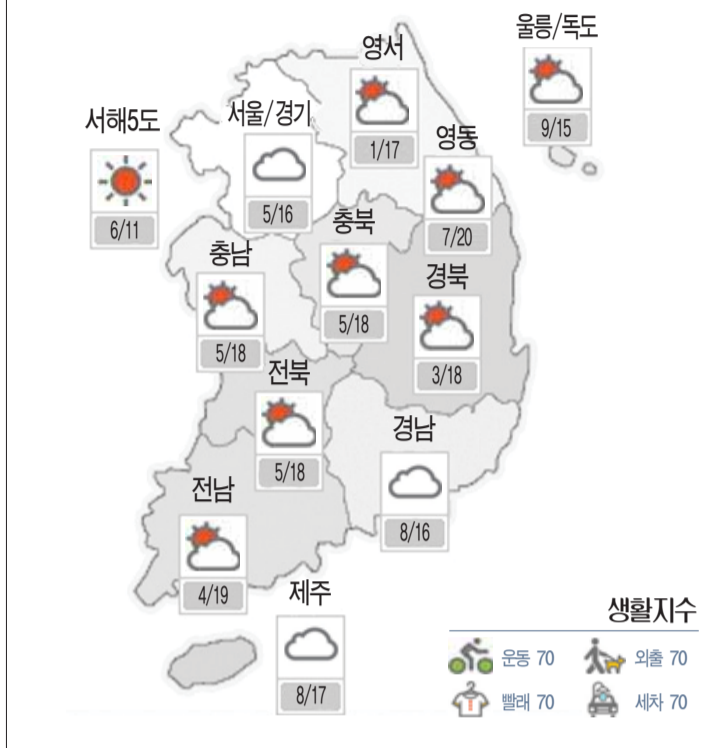
햇반은 ZERO, 보존료 ZERO, 용기걱정 ZERO

가까운 마트나 CJ 더마켓 에서 구매하실 수 있어요!

매일 건강한 잡곡밥 생활 햇반

오늘의 날씨 전국 맑다가 구름...미세먼지 '보통'

24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아침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0~8도, 낮 최고기온은 14~20도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겠으니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면역력 저하 등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 전 권역에서 ‘보통’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 강원 중·북부 동해안 등 동쪽지방에서 부는 강한 바람은 이날 오전까지 계속되겠다.



양평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내달 2일부터

경기 양평군은 내달 2일부터 장애인 30여 명을 대상으로 ‘2021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는 평생학습으로 사회적응력을 높이고 자립생활능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장애인 맞춤형 프로그램인 커피 핸드드립 교육과 정리수납 오가나이지 교육 등 2개 과정을 진행한다. 커피 핸드드립 교육 ‘따숨’은 지속적인 장애인 바리스타 양성을 목적으로 개설됐으며 60시간 교육 이수 및 실기시험 후, 핸드드립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고 교육은 내달 2일부터 오전·오후 2개 과정으로 3시간씩 총 23회에 걸쳐 진행된다. 정리수납 오가나이지 교육 ‘뒷손잡이’는 공간정리를 어려워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리수납과 관련된 취·창업이 가능한 인력을 양성, 지역사회와 연계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개설됐다. 교육은 내달 9일부터 총 19회에 걸쳐 진행되며 이수 후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양평/홍문식기자 <hongms@jeonmae.co.kr>

동두천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상향

경기 동두천시는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3배로 상향해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지난해 11월 10일에 공포됨에 따라 오는 5월 1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할 경우 과태료가 현행 일반 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된 금액인 승용차 기준 12만 원, 승합차 기준 13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시민이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사고가 가능한 주민신고 제 적용구간으로 1분 이상 주차할 경우 신고를 통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대폭 상향됨에 따라 시행에 앞서 현수막 부착, 안내문 배부 및 SNS 안내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자칫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운전자에게 교통법규를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동두천/이유국기자 <leewg@jeonmae.co.kr>

충남도, 봄철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강화

충남도가 야생멧돼지 출산시기에 맞춰 봄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합동으로 도내 양돈농가의 우선적인 방역 강화를 위해 내달 말까지 점검을 실시한다. 방역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지도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한 농장 내 ASF 유입방지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축산차량 진입 제한을 전면 시행하며 한돈협회와 협력해 10월 말까지 8대 방역시설 설치율도 높인다. 이와 더불어 전파의 주 매개체인 야생멧돼지에 대한 서식밀도 감소를 위한 집중포획과 폐사체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농가에서는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외부 차량사냥 출입 통제, 매일 소독 실천, 축사 출입 전후 장외관리인기 등 기반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충남취재본부/한상규기자

삼척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특별점검 내일까지

강원 삼척시는 지난 22일부터 코로나19 자가격리자 특별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특별점검기간으로 정해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점검대상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용 마스크(고령자) ▲일 2회 자 격리단 및 유선통화 등 모니터링 불참자 ▲방역강화 대상국가 입국자 및 재 입국 외국인이며 자가격리 수칙 준수와 무단이탈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불시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무단이탈자가 자가격리자는 무단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조치하고 내국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생활지원비 지원 등 지원혜택을 배제할 계획이다. 외국인이나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자를 거부할 경우 강제 출국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삼척/김홍식기자 <kimhs@jeonmae.co.kr>

수원시 글로벌 다문화특성화학교 ‘각광’

한국어능력평가 점수 ‘쑥쑥’ 맞춤형 교육으로 민족도 높아

경기 수원시 ‘글로벌 다문화특성화학교’가 눈길을 끌고 있다. 23일 시는 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한국어 능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8개 글로벌 다문화특성화학교에서 지난해 한국어 교육을 받은 다문화가정 학생 60명의 한국어능력평가 평균 점수는 5월 229점에서 11월 285점으로 56점이 나 올랐다. 또 듣기·읽기·쓰기·말하기 등 4개 영역을 평가하는 한국어능력평가

는 400점 만점이다. 시는 지난 2016년 2월 수원교육지원청, 경기대와 다문화 특성화 학교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6년째 글로벌 다문화특성화학교를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2016년 지동·세류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참여 학교가 지속해서 늘어나 2019년에는 8개 초등학교에서 글로벌 다문화 특성화학교를 운영했다. 올해도 지동초, 세류, 남수원, 매산, 화홍, 수원초등학교 등 6개 학교를 선정했다. 이들 학교에는 수업 내용·학교 규모에 따라 2400만~4000만 원을 지원한다. 각 학교는 학교 여건·특성에 맞는

다양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언어소통 문제 해소를 위해 ‘다문화특별학급’, ‘무학년제 한국어 교실’ 등을 운영하고 이중언어 교육도 한다. 다문화 학생들의 한국어 실력은 맞춤형 한국어 집중교육 과정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또 프로그램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다문화 가정 학생은 대부분 언어습득 정도 차이가 커서 학생 개개인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맞춤형 교육을 해야 한다”며 “올해 선정된 6개 학교가 학교별 여건과



경기 수원 지동초등학교에서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한국어수업을 하고 있다.

특성에 맞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펼쳤다. 수원/박신식기자 <sspark@jeonmae.co.kr>



경기 여주시 산북면 후리 8번지 일대 불법으로 아져된 페아스콘.

페아스콘 등 불법 야적...주민 원성

여주시, 허술한 농지관리 물의 “관련법 검토·원상복구 조치할 것”

경기 여주시 산북면 후리 8번지 일대 논과 밭 수천개에 A업체가 성토를 위한

허가를 취득하고 페아스콘 등을 불법으로 야적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해당 농지의 지형은 경사가 심한 지역으로 장마나 폭우시 대량사고 위험이 있어 주민들이 불만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전담 현장조사

를 통해 페아스콘 및 잡석이 섞인 토사 등을 확인했다며 관련법 검토 및 원상복구 조치를 취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여주/김연일기자 <Y1-kim@jeonmae.co.kr>

고양경찰서,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활동 전개

청소년 PM 이용시 유의사항 관련 법령 안내 5월 13일부터 면허 소유자만 PM 운전 가능

경기 고양경찰서는 23일 덕양구 지도중학교 앞에서 최근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PM(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 유의사항과 관련 법령 등을 홍보하는 안전활동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홍보는 교통경찰관은 물론, 청소년들의 특성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여성청소년 학교담당경찰관과 모범운전자회 등 40여명이 참여해 교통안전과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병행 실시했다. 특히 오는 5월 1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운전면허가 없는 중고생들도 제한 없이 PM을 이용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소유자 이상 PM을 운전할 수 있고 무면허로 이용하는 자발법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고양/임정일기자 <imci@jeonmae.co.kr>



경기 고양경찰서는 23일 덕양구 지도중학교 앞에서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시 유의사항과 관련 법령 등을 홍보하는 안전활동을 실시했다. <고양경찰서 제공>

김영주 경비교통과장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청소년들의 안전한 PM 이용을 위해 다각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PM 대여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고양/임정일기자 <imci@jeonmae.co.kr>

홍성군, 중증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사업 시범 운영

회당 2시간 이상·연간 최대 64시간

충남 홍성군이 ‘중증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박성래 가정행복과장은 “이 사업 시행으로 관내 장애인 가정의 돌봄 공백 문제와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해 장애인 가정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관내 많은 중증장애인 가족들이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중증장애인 중 긴급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자로 서비스 시간은 회당 2시간 이상, 연간 최대 64시간(시간당 1100원~1600원 비용 발생, 수급자·차상위 계층은 50% 비용 감면)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 보호자가 친인척 경조사 참석이나 보호자 질병 치료·입원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경우 긴급 돌봄비가 가정 또는 유관기관 등 방문해 단선보

호, 관할 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하지만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등 다른 인적 돌봄 서비스 이용 시 중복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관련 서비스를 희망하는 보호자는 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홍성/최성교기자 <sgchoi@jeonmae.co.kr>

서산시,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여성 최대 150만원 진료가능하다. 희망하는 자는 난임진단서 또는 난임진료확인서, 장애검사결과지(남성),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을 지참해 보건소로 방문하면 된다. 이용을 시 건강증진과장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행복한 임신과 출산·양육 지원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산/한상규기자 <hansg@jeonmae.co.kr>

안양시, 올해 열린어린이집 105개소로 확대

보조교사 우선지원 등 인센티브

경기 안양시가 현재 78개소인 열린어린이집을 올해 안에 105개소 늘린다고 23일 밝혔다. 일단 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되면 공공형어린이집 신규지정과 국공립어린이집 재우탁 시 가점처우를 받는다. 또 보조교사 우선지원이 이뤄지며 보육사업 유공포상 추천에 우선권이 부여된다. 교재교구비 우선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시는 오는 10월 열린어린이집의 선정계획을 발표해 27개소를 추가하는 한편, 우수형 열린어린이집을 선정해 시는 보건복지부에 추천할 예정이다. 안양/배진석기자 <baeis@jeonmae.co.kr>

시는 이와 관련해 지난 19일 화상으로 어린이집 원장 150여명이 참여하는 열린어린이집 설명회를 개최했다. 최대호 시장은 “최근 아동학대 사건을 접할 때 마다 안타까운 심정이려나 안양에서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육교육의 대상 아동에게 예방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열린어린이집 확대와 함께 지난해까지 34개소였던 국공립어린이집을 내년까지 41개소로 늘릴 계획이며 아동들의 보육환경은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보령시, 대형 산불방지 특별대책 내달 16일까지

마을별 소각근절 유도

충남 보령시는 내달 16일까지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별 예방에 총력을 다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첫째 주와 둘째 주 기간 읍·면·동과 시청 전 부서 공무원들이 토요일과 일요일 분담 마을을 지정해 ▲산과 인접한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소각행위 금지 ▲산림 내 취사 및 쓰레기 소각 등 금지 ▲임산 통제구역 무단출입 금지 등을 집중 홍보키로 했다. 보령/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또한 산불감시원과 진화대 차량을 충당원에 취약지 순찰 및 연표 방송을 강화하고 산별 발생 시 상황 유지와 함께 보령소방서와 산불감시 및 전문진화대, 의용소방대와 함께 진화작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양희주 산림공원과장은 “불철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대형 산불 특별대책 기간에 산별 예방 활동도 주력해 소중한 산림이 보호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보령/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과주시 국민행복민원실, 환경개선 완료

바닥에 민원안내 유도사인 설치

경기 과주시 국민행복민원실이 환경개선 공사로 새단장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사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했으며 민원실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밝게 개선했다. 고령자와 장애인 등이 원하는 장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업무영역별 색상구분과 바닥에 민원

안내 유도사인을 설치했고 수유실과 복קה를 만들어 아이를 동반한 민원이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최중환 시장은 “더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실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밝게 개선했다. 고령자와 장애인 등이 원하는 장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업무영역별 색상구분과 바닥에 민원



세종소방본부가 ‘사고대응기동백’을 제작·배부한다. <세종소방본부 제공>

세종소방본부, 전국 최초 ‘사고대응기동백’ 배부

일상생활서 전문적 구조 가능

세종소방본부가 ‘사고대응기동백’을 전국 최초로 제작·배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백은 구조·응급처치 장비 등 23종 27점으로 구성된 구조대원이 평상시 개인차량에 신고 다니면서 비발발 등 일상에서 마주하는 사고 현장을 즉각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최근 소방공무원이 일상생활에서

교통사고, 화재 등 구조상황에 맞닥뜨려 인명을 구조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보다 전문적인 구조를 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김영근 대응예방과장은 “사고대응기동백을 보급해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구조대원이 보다 신속하게 대응을 역량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유양준기자 <yjyou@jeonmae.co.kr>

“국정원 간부의 민간인 사찰 ‘직권남용’ 맞다”



법제의 판결

대법원이 국가정보원 간부가 정치인과 민간인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직권남용으로 보아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1부는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국정원 방첩국장에 게 징역 7개월에 자격정지 7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前 국장 ‘직역·자격정지 7개월’ 원심 확정 “민간인 사찰은 국정원 직무에 포함 안돼”

김씨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1년 전후로 대북 관련 공작을 수행하는 방첩국 산하에 ‘포장전’이라는 이름으로 공작팀을 꾸렸다. 포장전팀은 아원과 진보 인사 등을 상대로 미행 등을 하거나 악성코드나 PC를 해킹해 이메일 자료 등을 빼내는 방식으로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김씨 측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도 민간인 사찰은 국정원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직권남용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외형상 자신의 업무 범위 내에 속하는 일에 대해 다른 의도로 지시할 때 성립하는데 민간인 사찰이 국정원법상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아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1심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국정원 직원은 헌법에 정해진 (의무)를 준수

할 책임이 있다”며 김씨가 아원 의무를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불법으로 민간인을 사찰했다고 판단했다. 2심도 “국정원법에 규정된 고유 직무인 ‘국의 정보와 국내 보안 정보의 수집·작성·배포’ 등의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다”며 국내 보안정보와 관련이 없는 민간인들의 정보를 수집하려고 지시한 행위는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박의라기자

연천 초성리 탄약고 지하화 ‘난감’

군 “국방부가 반대하고 있어 법 개정안 심의도 안이뤄져”

경기 연천군 초성리역 인근 군부대 탄약고 지하화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다.

23일 군에 따르면 이를 위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뒤 지난해 6월 재발의됐으나 흐지부지한 상태다.

군 관계자는 “국방부가 반대하고 있어 개정안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13년 1월 군과 국방부

가 협약을 체결해 추진한 것이다. 탄약저장 시설 대신 군부대 내 야산에 터널을 뚫어 저장시설을 갖추는 것으로 지하화에 필요한 비용 318억원을 군이 행정안전부의 지원을 받아 부담하고 10억원 상당의 군부대 땅 5500㎡를 받는 조건이다.

하지만 ‘기부 대 양여’ 조건이 ‘97:3’로 지자체 부담이 지나친다는 이유로 지난 2014년 행정안전부 중앙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못했다.

군은 초성리 일대 2개 군부대 빈 땅 13만 4000㎡(220억원 상당)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사업을 재추진하려 했다.

이 역시 법률에 따라 탄약고 외 다른 군부대 땅은 기부 대 양여사업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접경지역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 기부 대 양여사업에 대해 용도 폐지된 다른 국방부 재산을 양여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국방부가 전국에 적용되는 법률 개정에 있어 탄약고 지하화를 위한 결렬법 해결을 못하고 있다. 군은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지만 쉽지 않다.

한편 군 관계자는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탄약고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 개정을 추진하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고 말했다.

연천/ 김진호기자 <kimjh@jeonmae.co.kr>



전국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23일 현대제철 순천공장 정문 앞에서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현대제철 고용노동부 시정지시 불이행 규탄 및 직전교섭 요구 결의대회’ 등의 농성에 돌입했다.

“고용노동부 시정지시 즉각 이행하라”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항의 농성 “정규직 전환 어길시 총파업 불시”

전국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23일 현대제철 순천공장 정문 앞에서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현대제철 고용노동부 시정지시 불이행 규탄 및 직전교섭 요구 결의대회’ 항의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 비정규직지회는 현대제철 순천공장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 전체(516명)는 파견노동자라고 판단, 현대제철에게 무리가 파견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를 사용했기에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가 지난 22일까지 이행하라고 지시했는데도 불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항의 농성에 돌입했다.

현대제철비정규직노조 박정민 부지장은 “고용노동부의 정규직 전환 시정지시가 즉각 이행되지 않을 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구용배기자

경기도가 유가농식품 인증기업에 173곳을 대상으로 23일부터 내달 6일까지 수입 유가농식품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또 25일부터 내달 1일까지는 화성, 과주, 김포, 광주, 안성, 포천 등 6개 시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점검도 병행한다. 이번 점검 품목은 주요 수입 품목에 해당되는 곡류, 과일, 채소, 당류가공품, 다류, 커피류와 기타 시·군별 자체 계획에 따른 농산물과 그 가공품 등이며 각 업체가 취급하는 ‘유기농’ 표시 인증품의 원산지표시와 실제 구입 내역 일치 여부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

외국산 근무복 678억대 국산둔갑 부정 납품 9개 업체 적발

공공기관에 베트남과 중국에서 생산한 근무복을 국산인 것처럼 속여 납품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수입 의류의 원산지 표시 라벨을 제거하는 수법으로 군부대와 정부 기관, 공기업 등에 부정 납품한 9개 업체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베트남과 중국에서 수입한 근무복 158만벌(납품금액 678억 원 상당)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육군·공군·경찰청·소방청·한국전력공사·한국철도공사 등 31개 공공기관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업체들은 직접 생산을 조건으로 조달 납품 계약을 한 뒤 실제로는 베트남과 중국에서 만든 완제품 의류를 수입해 원산지 표시 라벨을 제거하고 재포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이들 납품업체가 의류를 직접 수입할 경우 관계 당국에 쉽게 노출되는 것을 피하려고 외국에서 의류 입수공을 하는 다른 국내 업체가 대신 수입하도록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세관은 지난해부터 원산지 단속 전담팀을 투입해 공공 조달 유류 납품업체들의 국내 매출 내역과 수입 실적 등을 분석해 위법 사실을 확인했다.

인천/ 맹장수기자 <mchs@jeonmae.co.kr>

경기도, 수입 유가농식품 원산지표시 여부 잡아낸다

경기도가 유가농식품 인증기업에 173곳을 대상으로 23일부터 내달 6일까지 수입 유가농식품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또 25일부터 내달 1일까지는 화성, 과주, 김포, 광주, 안성, 포천 등 6개 시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점검도 병행한다. 이번 점검 품목은 주요 수입 품목에 해당되는 곡류, 과일, 채소, 당류가공품, 다류, 커피류와 기타 시·군별 자체 계획에 따른 농산물과 그 가공품 등이며 각 업체가 취급하는 ‘유기농’ 표시 인증품의 원산지표시와 실제 구입 내역 일치 여부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

르면 원산지를 표시한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해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와 시·군은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에 대해 형사 고발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표시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 명령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관계자는 “제품 뒷면이나 옆면의 원산지표시 사황을 확인하고 구매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영민기자 <han-ym@jeonmae.co.kr>

코로나19 예방접종 이렇게 실시됩니다.

예방접종 대상 확인 및 예약 절차

개인별 예방접종시기안내



- 연령
- 기저질환 여부
- 직업 등 정보입력

개인의 해당분기 예방접종대상포함 여부 및 추후 접종가능시기 안내

예약 안내



65세 이상, 일반국민 등

질병관리청 ▶ 예약가능 안내(SMS 등)

예방접종 대상 ▶ 예방접종 예약, 누리집(인터넷), 모바일, 콜센터

예방접종 대상인 경우 가까운 예방접종 기관(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에 1차 예방접종 가능 시기를 선택하여 예약 ※ 2차 예방접종은 1차 접종 완료 후 예약 가능

- 기관을 통한 예방접종의향 제출
- 기관별 일정에 따라 예방접종 실시



우선순위 대상기관 근무자



예방접종 기관에서



예방접종이 끝나고



동정

만세보령농업대학 입학식
김동일 충남 보령시장은 24일 오후 3시 주교면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리는 만세보령농업대학 입학식에 참석.

제8대 영천시지부장 취임식
최기문 경북 영천시장은 24일 오후 3시 평생학습관에서 열리는 (사)한국농업경영학회 경상북도지회 영천시지부장 제8대 영천시지부장 취임식에 참석.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
이기동 경북 경산시의회 의장은 24일 오후 2시 포항시청에서 열리는 '제289차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
조영제 경북 영천시의회 의장은 24일 오후 2시 포항시청에서 열리는 제289차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

코로나19 백신접종 점검
윤경희 경북 청송군수는 24일 청송군보건요원을 방문해 코로나19 백신접종 및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을 점검.

제288회 임시회 폐회식
황선봉 충남 예산군수는 24일 오전 11시 분회의실에서 열리는 제28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폐회식에 참석.

하늘꽃마을 설계용역 보고회
최승준 강원 정선군수는 24일 오후 2시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하늘꽃마을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회 주제
이현중 강원 철원군수는 24일 오전 9시 30분 군수 집무실에서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회를 주제.

올해 첫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패 수여
강원 춘천경찰서는 효자2동 학산·샘 원룸 건물을 2021년도 첫 범죄예방 우수시설로 인증하고 인증패를 수여(사진)했다고 23일 밝혔다.

이현중 강원 철원군수는 24일 오전 9시 30분 군수 집무실에서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회를 주제.

이현중 강원 철원군수는 24일 오전 9시 30분 군수 집무실에서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회를 주제.

이현중 강원 철원군수는 24일 오전 9시 30분 군수 집무실에서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회를 주제.

이현중 강원 철원군수는 24일 오전 9시 30분 군수 집무실에서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회를 주제.

이현중 강원 철원군수는 24일 오전 9시 30분 군수 집무실에서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회를 주제.

이현중 강원 철원군수는 24일 오전 9시 30분 군수 집무실에서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회를 주제.

광양시, 2년 연속 다산안전대상 수상

우수기관 표창·상사업비 1억 확보
지난 대비 상시훈련 평가 등 우수
선정되기도 했다. 또 시는 ▲행정안전부 주관인 재난관리평가 우수(상사업비 1억 원)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추진평가 우수(상사업비 2억 원) ▲재난 대비 상시훈련 평가 우수 ▲우수 어린이 놀이시설 선정 등 재난·안전분야 관련 각종 평가에서 괄목할만한 성적을 거뒀다.



전남 광양시는 2020년 다산안전대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년 연속 다산안전대상을 수상했다. <광양시 제공>

인산동부署, 시민안전센터 관계요원에 표창
특수폭행 피의자 검거 기여
조강원 경기 인산동부경찰서 서장은 최근 고양시 시민안전센터를 방문, 특수폭행 피의자 검거에 기여한 관계요원에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23일 밝혔다.



조강원 경기 인산동부경찰서장은 고양시 시민안전센터 관계요원에 표창장을 수여했다. <인산동부경찰서 제공>

인천시와 (사)인천시자원봉사센터는 코로나19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들을 위한 응원키트를 제작, 관내 감염병 전담병원과 군·구보건소 의료진들에게 전달했다.

인천시, 코로나19 의료진에 응원키트 전달
박찬준 시장, 인천시자원봉사센터 전연성 이사장, 군·구자원봉사센터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자원봉사자 80여명과 함께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지키며 의료진 응원키트를 포장했다.

주택관리공단 속초청초1관리소, 주거복지 향상 MOU
속초종합사회복지관과 체결
주택관리공단 강원 속초청초1관리소는 최근 속초종합사회복지관과 '임주민을 위한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택관리공단 강원 속초청초1관리소는 속초종합사회복지관과 '임주민을 위한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현중 강원 철원군수는 24일 오전 9시 30분 군수 집무실에서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회를 주제.

나주교육지원청, 사회복지시설 3곳에 마스크 전달
재정집행 최우수 포상금 사용
전남 나주교육지원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사회복지시설 3곳(계신원·백민원·금성원)을 방문, 마스크를 전달하고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남 나주교육지원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사회복지시설 3곳에 마스크를 전달했다. <나주교육지원청 제공>

순천대 이재은 교수 '무역연구원 학술대상' 수상
순천대학교 이재은 교수(경제무역학부 무역학전공·사건)가 '2020년 한국무역연구원 학술대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순천대학교 이재은 교수는 '2020년 한국무역연구원 학술대상'을 수상했다. <순천대 제공>

신용철 춘천도시공사 사장 '빨리 폭압 종식되길'
미안바 민주주의 회복 응원 챌린지
신용철(사진) 강원 춘천도시공사 사장이 미안바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응원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23일 밝혔다.



신용철 춘천도시공사 사장은 '미안바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응원 챌린지'에 동참했다. <신용철 제공>

이승욱 구례군의원 '국토균형발전 필요'
전라선 고속철도 반영 촉구 챌린지
이승욱 전남 구례군의원(더민주, 구례군 나산지구·사건)이 전남 전라선 고속철도 구축 사업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을 위한 '전라선 고속철도 국가철도망 반영 촉구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23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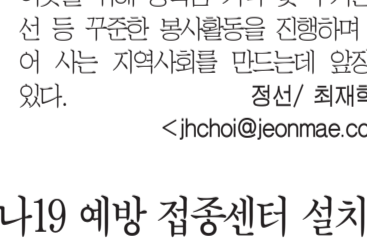
이승욱 전남 구례군의원은 '전라선 고속철도 국가철도망 반영을 위한 국가철도망 반영 촉구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승욱 제공>

정선 고한읍의용소방대, 노후 보일러교체 봉사활동
주거환경 개선 봉사도 실시
강원 정선 고한읍의용소방대는 23일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노후 보일러교체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강원 정선 고한읍의용소방대는 23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노후 보일러교체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고한읍의용소방대 제공>

보령시, 종합체육관 내 코로나19 예방 접종센터 설치
김동일 시장, 상황 점검
충남 보령시는 전남 보령 종합체육관 내 코로나19 예방 접종센터를 설치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김동일 충남 보령시장은 보령 종합체육관 내 코로나19 예방 접종센터를 찾았다. <보령시 제공>

철원군, 국방개혁 20만대 릴레이 시위
강원 철원군과 사회단체는 34만 사령부 이전 등 결정지역을 밀집하는 내용을 담은 국방개혁 20만대 릴레이 시위 등 강경투쟁에 나섰다. <철원군 제공>



강원 철원군과 사회단체는 34만 사령부 이전 등 결정지역을 밀집하는 내용을 담은 국방개혁 20만대 릴레이 시위 등 강경투쟁에 나섰다. <철원군 제공>

포토뉴스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반부패 청렴교육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23일 경기도장애인체육회 회의실에서 부서장급 6명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한영민기자 <han-ym@jeonmae.co.kr>



이기형 경기도의원, 김포교육지원청 정담회 개최
이기형 경기도의원(더민주, 김포4)은 최근 김포교육지원청에서 '김포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김포교육지원청 정담회'를 개최했다. <한영민기자 <han-ym@jeonmae.co.kr>



신포항로타리클럽, 취약계층 4명에 장학금 전달
국제로타리3630지구 신포항로타리클럽은 최근 클럽회의실에서 청림24주년을 기념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장학생 4명을 선정해 총 2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포항/ 박희경기자 <barkh@jeonmae.co.kr>



대한적십자봉사회 청양지구협의회, 마스크 기탁
대한적십자봉사회 충남 청양지구협의회 회원들은 최근 군을 방문, 재난 취약계층을 위한 마스크 1만 대를 기탁했다. <청양/ 이연경기자 <leegy@jeonmae.co.kr>



송계호 정선 사북신협 이사장, 장학금 기탁
송계호 강원 정선 사북신협 이사장은 23일 사북장학회를 맞아 사북장학회에 장학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정선/ 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



오진택 경기도의원, 어르신 환경정화 활동 실시
경기도의회 오진택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더민주, 화성2)은 최근 (사)화성청우회, 우정을 주민자치회 및 지역 청소년 등 80여명과 함께 어르신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한영민기자 <han-ym@jeonmae.co.kr>



서천군 정항읍 이우림 씨 '좋은 이웃 138호'로 지정
충남 서천군 정항읍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KF 마스크 1000개를 기탁한 이우림 씨를 '좋은 이웃 138호'로 지정하고 증서를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천/ 노영철기자 <noyc@jeonmae.co.kr>



철원/ 지명복기자 <jmb123@jeonmae.co.kr>

오늘자 인사 및 부고는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투기세력 발본색원해 정의 실현해야

박해광의 세상보기



한국BBS경기도연맹 회장
전 광주시의회 부의장

(漸入佳境) 수준으로 드러나 큰 사회적 물의(物議)를 낳았고 전 국민의 공분(公憤)을 사고 있다.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첫째로 정책의 잘못된 선택(選擇)과 집중(集中)이 나온 결과다. 경쟁구도를 독점구조로 만들고 균형을 잃어 자기검증이 불가능한 구조를 만들어낸 것이 첫 번째 원인으로 보인다. 대규모 소규모도 LH공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토지의 구매부터 용도의 변경, 주택의 건축과 분양까지 일사관리로 추진되는 구조가 되었고 때문에 LH공사 조직원들 가장 먼저 가장 확실한 개발정보를 손에 넣을 수 있었을 것이다. 둘째로 만연한 황금만능주의(黃金萬能主義)와 도덕불감증(道德不感症)의 결과다. '윗물이 맑아야 아래물이 맑다'는 속담처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4년간 개발, 대형급 자원투자외고, 최순실 국정농단사건 등 정권 최고위층의 비리가 강물처럼 위에서 아래까지 흘러들어도 누구하나 문제 삼지 않는 도덕불감증의 세상을 만든 것이 그 원인이다. '도랑 지고 가재 잡으'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LH공사 임직원, 중앙과 지방정부의 공직자는 오랜 기간 그들의 부동산 투기 잔치를 벌여왔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전에 비해 공직의 불법과 비리가 전반적으로 급증했다. 2011년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규식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민등록법 위반자는 2006년 180명에서 2010년 422명으로 2.5배 늘었다고 한다. 이 가운데 위장전입으로 적발된 경우는 2006년 29명에서 2010년 101명으로 3.5배 증가했다. 공직자 비리 역시 급증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건수는 2008년 784명에서 2009년 1089명, 2010년 1439명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3년간 모두 3천289건을 기록했다. 이전 정부 때인 2006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총

2294명보다 43.4%가 늘어난 것이다. 위반 내용도 금품·향음 수수가 43.3%를 차지했다. 게다가 행정안전부가 중앙공무원원을 제외하고 집계한 2010년 뇌물수수과 공금횡령 등의 부패로 과면·하급 등의 징계를 받은 자 34만4천 명으로 2009년 28만6천 명이었다.

이처럼 공직과 민간을 막론하고 불법과 비리가 급증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고위 공직자들의 불법과 탈법 전략에 유난히 관대했던 영향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소위 위장전입·방역면제·투기·탈세가 이명박 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4대 팔수과목'이라는 말이 회자되기도 했을 정도였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부터 장관에 이르기까지 상습적 위장전입과 악성 부동산 투기, 석연장은 병역면제 등과 관련이 없는 경우를 찾기 어려울 정도였다. 불법과 탈법의 부동산 투기로 한 몫 잡아보자는 식의 도덕불감증 분위기는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까지 그대로 이어져 LH공사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적폐 소굴이 만들어진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시류(時流)인(時流)이라는 비난은 피할 수 없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관련자를 수사하고 일벌백계(一罰百戒)의 처벌을 통해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까지 부동산 투기를 막을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공직과 공공분야 종사자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재산을 축적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보완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팔자를 비롯한 대다수 신원한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을 믿고 따라 오다가 갑자기 '벼락치기(부동산 가격)가 갑자기 급등해 번두리 1주택 또는 무주택 서민이 졸자에 상대적으로 재산이 줄어든 상황을 일컫는 속어'가 돼 심기가 부글부글 정도로 매우 불편한 상태다. LH 사태는 여기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다. 문재인 정부와 합동수사본부는 좌고우면(左顧右盼) 하지 말고 마지막 단 한 사람의 투기세력까지 철저히 추적해 단죄해야 한다. 이것이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는 법률 제9706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근거하여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에 탄생한 공기업(公企業)이다. LH공사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개발공사 두 개 기관이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으나 이명박 정부는 이 두 개의 기관을 합쳐 LH공사를 설립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출범이후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는 정책 슬로건을 표방하고 '공기업 신진화'라는 명분 아래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합병해 공공조직인 자본금 40조 원 규모의 LH공사를 탄생시킨 것이다. LH공사의 설립목적은 "토지의 비축·개발·취득·공급, 도시의 개발·정비, 주택의 건설·공급·관리업무 수행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었다. 거창한 공익의 목적을 가지고 탄생한 LH공사는 지금 그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기하 급수적으로

전국의 생생한 NEWS를 한눈에

전국매일신문 jeonmae.co.kr

대표전화 1588 - 5762

정 치 부 031-755-5600 지 방 부 031-755-5622
경 제 부 02-749-0923 광고문의 070-4325-3858
사 회 부 031-755-3484 FAX 031-755-4360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2(수진동, 예봉빌딩)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649-기림창동, 덕신빌딩

구독·배달안내

서울본사	02-749-0922	간원촌신문부	033-251-4866
인천본사	032-751-1478	충남본부	041-688-3722
경기북부본사	031-967-1616	충북본부	043-255-8877
대구본사	053-471-1111	충남본부	061-742-9781
경남본부	055-761-7882	서부본부	061-284-9781
세종본부	044-865-8000	제주본부	064-723-1950

1997년 6월24일 창간(등록번호 가-43호(일간))
구독료 : 월 1만6,000원 / 1부 7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사제휴사 : 중국 요양보험사 조신문보

합동연설회의 기억

기고



노재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담당관

열렬히 환호한 후 자리를 이탈하는 청중의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다. 또 60~70년대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연설회장 주변 식당이나 운동장 한쪽 모퉁이에 냉면구는 막걸리잔과 막걸리야 취해 곤히 잠들어 있는 유권자의 모습을 기억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세상이 빠르게 변해 합동연설회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그 자리를 TV 대담·토론회가 대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권자는 TV를 통하여 후보자들의 대담·토론회를 접해서 편하게 볼 수 있게 됐고, 최근에는 방송사 TV뿐만 아니라 주요 포털사이트(네이버, 카카오)와 유튜브를 통해 시청할 수 있게 됐다. 과거 연설회에서는 후보자가 준비한 연설로 후보자의 자질을 평가했지만, 이제는 각 후보자가 얼마나 준비가 되어있는 후보자인지 토론회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게 됐다.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우리를 대표하는, 아니 나를 대체해 서울시를 이끌 대표자를 선택하는 이번 서울시장보궐선거, 어떻게 후보자를 결정하시는지요? 우선 3월 29일(월), 3월 30일(화)에 서울특별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후보자 TV토론회를 시청하고, 각 후보자가 작성한 선거공보를 꼼꼼히 살펴본 후 서울시에 가장 적합한 후보를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 후에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신분증을 챙겨 투표소로 향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기 부탁드린다.

싱싱한 새우로 태어나 청정원 양조간장을 만났으니 성공한 인생 아니겠는가!

청정원은 혼합간장이 아닌 100%양조간장만 만듭니다

햇살담는 양조간장

분도개장공고 (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응모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아래 신고기간에 본공고에 따라 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으면 유안으로 간주하여 본공고에 따라 공고하여 다른 이점장소로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도위치 : 인천시 대월면 대다리 산102-16, 산102-13, 산102-12
2. 분도개수 : 3기
3. 개장사유 : 관리행위
4. 개장방법 : 가. 유안분도 -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 나. 유안분도 - 신고기간 협의개장
5. 안전장소 : 홍남군으로 유안분도 시(대동거리) 100세대(신도유안분도)
6.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7. 안전기간 : 10년
8. 공 고 인 : 김근래
9. 신고방법 : 분도의 신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증거, 계약서본, 책보 등)를 구비하여 신고처로 신고합니다.
10. 신고 처 : 대행시 : 함동강도탈법서비스 010-5289-3374
11. 기 타 : 동 주민내에 추가 분도발생 시 본공고에 갈음함.

2021년 3월 24일

유·무안 분도양 조 전문업체 : 함동강도탈법서비스

오늘, 퇴계의 옛길을 걷다

퇴계의 길을 따라

퇴계에게 길을 묻다

퇴계의 신비정신을 일러온 김병일 도산서원 원장이 인생의 길을 찾는 이들에게 전하는 삶의 지혜!

김병일(도산서원 원장 | 선비문화수련원 이사장)

신국판 율컬러·258쪽·17,000원

한국의 서원 2019년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

나남 Tel. 031-955-4601 nanam www.nanam.net

식객이 뽑은 맛집 찾아떠나는 먹방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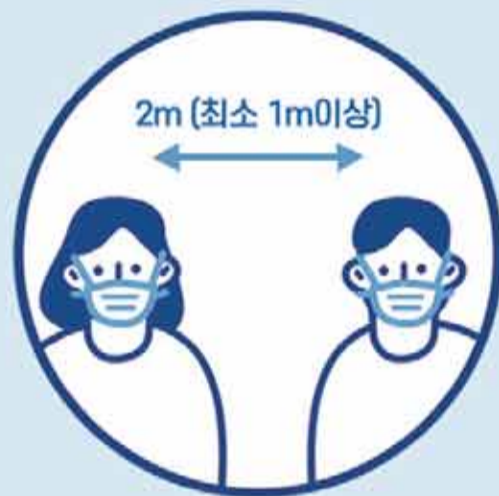
허영만이라면 믿고 먹는다

넘쳐나는 맛집 리뷰, 믿을 수 있을까? 서울부터 제주까지 식객 허영만이 전국을 돌며 직접 맛보고 고른 최고의 맛집. 허영만이라면 믿고 먹는다! 어머니의 손맛, 소박하지만 잊지 못할 한 끼를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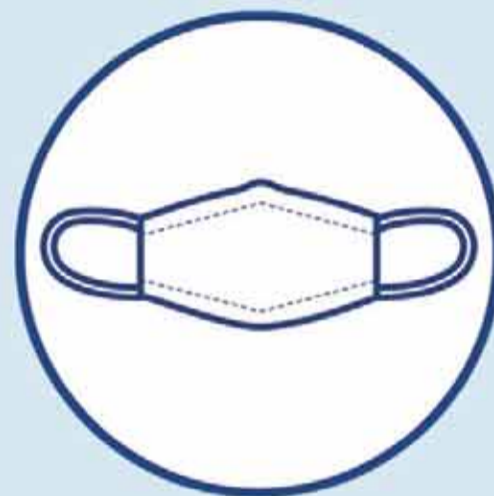
식객 허영만의 먹방기행 허영만 TV조선 (식객 허영만의 먹방기행) 제작된 지음 17,000원 | 352쪽 | 가디언



코로나19, 우리의 건강을 위해 일상 속 예방수칙을 지켜주세요!



2m(최소1m)이상
거리를 띄워주세요



마스크 착용,
선택 아닌 필수



손바닥, 손가락 사이,
손톱 밑까지 씻어주세요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나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아 주세요



밀 폐 된 공간 이 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피해 주세요



코로나, 감염병 이외
질병에 관한 궁금증은
1339로 전화해 주세요



주의! 잘못된
마스크 착용,
안돼요!



❶ 코가 노출되는 마스크 착용



❷ 마스크 걸 면을 만지는 행위



❸ 턱에 걸치는 마스크 착용